

분과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의 제문제

사회 : 유소영(단국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능력 평가 구인 연구

곽영(남서울대학교)

1. 서론

한국 국내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외국인 학습자의 수요와 한국어 번역, 한국어 번역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요즘에 들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의 대부분이 번역 양상이나 번역 전략 등 한국어 번역의 실재를 다루거나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과정 또는 교육목표, 교수법 등을 논하는 것들이다. 번역 평가를 주제로 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인 한국어 번역 평가 연구로는 유군군(2021)과 유군군(2022)를 들 수 있다.

유군군(2021)은 한국어 번역 교육에서 학습자의 번역 능력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평가 구인 체계를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번역 능력 평가 기준과 번역품질 평가 기준, 해외 전문 통번역사 인증 시험 평가 기준의 세부 항목을 집계하고 재분류하여 번역 능력 평가 구인 체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학습 성과, 즉 성취도를 측정하는 번역 능력 평가 연구에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점과 성격이 다른 숙달도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번역 학습자의 번역물 평가 기준에 초점을 맞춘 유군군(2022)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평가 기준과 전문 번역사 인증 시험에서 사용되는 평가 기준을 검토하여 학습자 번역물 평가 기준의 틀을 도출하였다.

그럼 한국어 번역 능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한국어 번역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타당한 판단을 내리고 제대로 평가하려면 우선 평가 구인을 밝혀 '무엇을 측정하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번역 평가와 번역 능력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번역 능력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번역 능력 평가 구인의 구성 틀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번역 능력 숙련도를 위한 측정이라는 목적하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평가 구인을 활용하여 번역 능력 평가 구인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번역 능력 평가 구인 체계를 실제 한국어 번역 평가에 적용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번역 평가에서의 평가 구인

평가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평가 대상자의 가치를 추론하여 판단하는 행위이다. 평가의 전체 과정을 번역 평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 대상자인 어떤 학습자 또는 번역사의 번역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평가 대상의 번역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번역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의 결과물인 번역 텍스트를 채점한 후 나온 성적을 보고 평가 대상자의 번역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론하고 파악한다. 그리고 그 정도의 번역 능력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번역 능력이 어떤 등급에 해당하겠는지 등을 판단한다. 판단의 결과 합격이나 불합격, 채용이나 탈락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본고는 번역 평가의 전체적인 과정을 다룬다기보다는 평가 대상자의 번역 능력이 투영된 번역 결과물을 채점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번역 평가에서 번역자의 번역 능력을 나타내는 정보 자료는 번역 텍스트이다. Allison Beeby(2000)에서 번역 능력은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다 포함'하는 듯하고 서로 긴밀히 연결된 여러 가지 다른 하위 능력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능력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능력이 번역 수행을 통해서만 발휘되기 때문에 도착 텍스트가 그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Colina(2003: 257)에서도 Cao의 관점을 인용하면서 번역 능력 평가는 관찰할 수 없는 구성 요소의 증거로서 번역의 결과물 내지 외적 형태에 계속 의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 능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번역 능력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번역자가 생산해 놓은 번역물을 통해서 번역 능력을 검증할 수밖에 없다.

그럼 번역자의 번역 능력을 알아내기 위해 실제 번역 텍스트를 평가할 때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번역 텍스트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을 눈여겨봐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번역 평가의 목적과 평가 구인 정의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특정 번역 교육과정이나 번역 수업의 교수학습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능력의 습득에 있어 시간, 장소, 방법, 조건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점에서 번역자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번역 능력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번역 능력 측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인 근거인 평가 구인을 밝혀야 한다.

구인(構因, construct)은 평가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해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의 구성 요소를 평가 구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 쓰기 능력을 이루는 내용 지식, 정확성, 조직성, 적절성 등의 구성 요소들이 평가 구인이 될 수 있다(한국어 교육학 사전, 2014:1010). 따라서 번역 평가에서의 평가 구인을 탐구하려면 번역 능력의 구성 요소¹⁾부터 살펴봐야 한다. 번역 능력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 구인의 구성 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2.2. 평가 구인의 구성 체계

번역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듯이 번역 능력에 대한 견해도 학자마다, 학파마다 다르다. 번역 능력의 구성 요소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Bell(1991), Nord(1992), Campbell(1998), Schäffner와 Adab(2000), Neubert(2000), PACTE Group 등 기존 연구를 보면, 학자별로 번역 능력의 하위 요소를 서로 다르게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있었다(이향2006:184-185, 김순영 2008:8). 언어적인 능력에서부터 전략적 능력, 텍스트적 능력, 사회 문화적 능력, 주제분야 능력, 심리학적 능력, 품질 평가 능력, 번역 툴 사용 능력, 성향까지 관점과 접근법의 차이로 번역 능력의 층위와 범위에 대한 시각 차이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비록 번역 능력에 대한 정의가 이처럼 다양하더라도 언어 능력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언어 능력이

1) 평가 구인은 능력의 구성 요소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만약 번역 능력에 대한 Brunette(2000)의 관점을 따른다면 논리성(Logic), 목적성(Purpose), 맥락(Context), 언어규범(Language Norm)이 평가 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runette(2000)의 관점과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2.2에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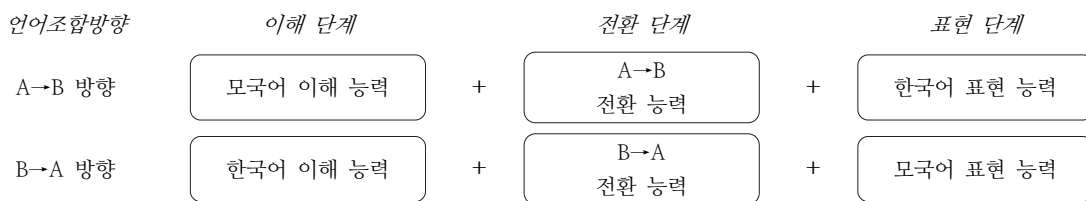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면서도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번역 능력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그 구성 요소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얼마나 많은 요소를 추가해야 번역 능력에 대한 정의를 완결시킬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²⁾(정연일, 2006:6). 따라서 본고에서는 번역의 전개 과정, 즉 분석과 전이, 재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번역 능력이 출발어 이해 능력, 전환 능력, 도착어 표현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겠다³⁾.

언어 간의 전환 능력은 언어 능력과 구별되는 번역 능력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는 번역 능력을 출발어 텍스트 이해 능력, 번역 테크닉, 도착어 작성 능력 세 가지 요소의 합으로 보는 미국 번역가 협회(AIA)의 관점⁴⁾과도 비슷하다. 번역 테크닉은 결국 전환 단계에서 발휘되고 그 결과 번역사가 출발 텍스트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을 생산한다. Pym(1993:28)의 주장을 참고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환 능력은 여러 능력을 종합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으로 출발 텍스트를 번역하는 데에 여러 개의 도착어 표현을 생산할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위와 같은 번역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에 입각하여 한국어 번역 능력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번역 능력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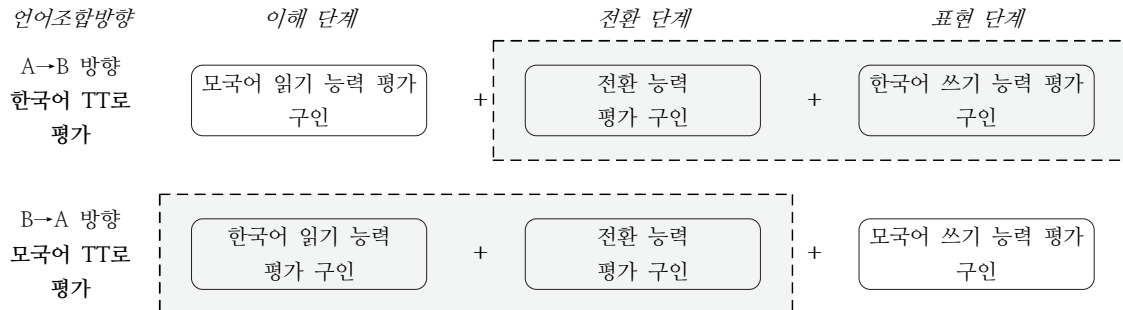


언어조합방향에 따라 한국어 번역에서 이해해야 하는 언어와 표현해야 하는 언어가 달라진다. 번역 능력을 평가할 때, AB방향 시 모국어 이해 능력과 언어 간 전환 능력, 한국어 표현 능력을 한국어 도착 텍스트를 근거로, BA방향 시 한국어 이해 능력은 물론 언어 간 전환 능력, 그리고 모국어 표현 능력을 모국어 도착어 텍스트를 근거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번역사가 한국어 학습자라는 점에서 모국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모국어 능력이 번역 능력의 구성 요소이기는 하나 번역 결과물의 다양성을 번역 능력 하위 요소를 통해 제대로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모국어 능력 요소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번역 능력 평가 구인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1970년대 이래 번역 능력의 정의에 있어 구성 요소가 점점 다양해졌다. 그 이유에 대해 정연일(2006)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시각의 변화이다. 언어학과 번역학에 고정되어 있던 초기의 관점이 인접학문으로 확대되면서 인접학문의 개념을 원용하게 되었다. 둘째, 번역 현장의 작동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활동이 점점 세분화되었다.
 3) 임형재(2016:186)에서는 통·번역의 전개 과정을 기준으로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한국어 분석 능력(이해), 한국어 전이 능력(언어 전환), 한국어 재구성 능력(표현)이라고 제시한 바가 있다.
 4) Competence in two languages i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for any translation task. Though the translator must be able to (1) read and comprehend the source language and (2) write comprehensibly in the target language, the translator must also be able to (3) choose the equivalent expression in the target language that both fully conveys and best matches the meaning intended in the source language (referred to as congruity judgment). 출처: <https://www.atanet.org/certification/how-the-exam-is-graded/>

〈표 2〉 한국어 번역 능력 평가 구인 구성



3장 내용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번역에서 실제 동원되는 언어 능력을 기준으로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으로 바꿔 표현하였다. 즉 외국어로서의 번역 평가에서 한국어 도착어 텍스트를 AB방향 전환 능력 평가 구인과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 구인을 중심으로, 모국어 도착어 텍스트를 한국어 읽기 능력 평가 구인과 BA방향 전환 능력 평가 구인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번역 능력의 구분과 평가 구인

번역 능력 평가를 위한 한국어 읽기 능력 평가 구인과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 구인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 한국어능력 시험(TOPIK)의 평가 구인을 활용할 것이다. 번역학의 관점에서 각 평가 구인의 내용을 검토하여 AB방향과 BA방향의 한국어 번역 능력 평가 구인 체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3.1. 읽기 능력에 따른 평가 구인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험 체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의 평가 구인은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과 평가적 이해력으로 구성된다.

번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읽기 행위를 ‘독자 자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갖고 있는 세상지식, 사전지식, 사전경험 등에 지금 읽고 있는 글의 내용을 비추어서 비교하고 추론함으로써 필자가 의도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능동적 행위’(이완기, 2017:281)로 본다면 BA방향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한국어 읽기를 발판으로 삼아 보다 더 세심하고 주의 깊은 읽기가 필요하다. 한국어 번역 능력의 구성 요소인 한국어 읽기 능력을 일반적 읽기의 구인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만 세부적인 평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표 3〉 한국어 번역 평가를 위한 한국어 읽기 능력 평가 구인

평가 구인	내용
사실적 이해력	지시의, 명시의 파악하기
추론적 이해력	내포의, 추론의, 함축의 파악하기
평가적 이해력	텍스트의 목적과 기능, 저자 의도 파악하기

번역에서 번역의 대상은 메시지의 의미이고, 읽기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본질이 된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적 의미, 단어들의 개념이 모여 형성된 명제적 의미를 토대로 텍스트의 내용을 추론, 분석 없이 진술된 그대로 파악하는 능력은 사실적 이해력이다. 사실적 이해력은 텍스트 메시지의 ‘지시의’ 혹은 ‘명시의’를 찾아내는 데에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에 비해 어떤 단어나 언어적 표현이 특정한 맥락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때 동원되는 능력이 바로 사실적 이해에 근거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측해 내는 추론적 이해력이다.

평가적 이해력은 역시 번역의 이해 단계에서 필수불가결한 능력이다. 비판적 시각으로 텍스트의 내용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저자의 느낌, 태도, 독자에게 의도된 영향을 파악할 때 발휘된다. 번역 작업에서 텍스트의 목적과 기능 등을 알아내는 능력이 평가적 이해력이다. 그리고 텍스트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는 것도 평가적 이해력과 직결된다.

비록 본고에서 한국어 번역 능력 평가 구인으로 모국어의 읽기 능력을 다루지는 않으나 모국어 읽기와 한국어 읽기의 차이에 있어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번역사가 모국어에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적 이해력과 추론적 이해력보다 평가적 이해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3.2. 전환 능력에 따른 평가 구인

전환 단계는 이해 단계와 표현 단계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로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를 둘러싼 일련의 신중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AB방향의 한국어 번역이든 BA방향의 한국어 번역이든 도착 텍스트를 재구성하기 위해 번역사가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번역할지를 여기서 결정해야 한다.

듀리예에 의하면 번역 과정은 6개의 단계⁵⁾로 나누어진다. 이 중 3, 4단계인 ‘전달할 정보를 골라내기’와 ‘독자 기대를 고려하여 총체적 의미를 도착어 텍스트로 구성하기’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전환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간 전환 능력에 대한 평가 구인은 번역사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바탕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 한국어 번역 평가를 위한 전환 능력 평가 구인

평가 구인	내용
전달 정보를 위한 선택과 결정	정보 추출
전달 방식을 위한 선택과 결정	독자 기대를 고려한 의미 구성
	번역 전략(번역사 원칙)을 반영한 의미 구성

5) 김혜영(2009:138)에 의하면 최정화(1997:50)에서 듀리예는 번역 과정을 다음의 6단계로 상세하게 나누었다. 1)번역물이 얻고자 하는 독자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2)번역 의뢰인에게 도착어로 미칠 영향이 출발어 텍스트와 같은 것인지를 확인한다. 3)전달할 정보를 골라낸다. 4)예상(잠재)독자가 기대하는 바에 의거, 모든 정보 요소를 총괄하여 도착어로 텍스트를 재구성한다. 5)글로벌 표현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6)번역한 텍스트를 다시 읽으면서 원문이 의도했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 있는가를 확인한다.

번역사는 이해 단계에서 출발 텍스트의 명시적 의미는 물론, 비명시적 의미까지 담긴 총체적 의미를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옮길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다시 도출한 의미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옮길지를 결정한다.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 두 가지 측면의 고려가 있다. 출발 텍스트가 가진 정보를 출발어에 충실하게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도착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할 것인지가 정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고려는 다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과 결정으로 이어진다. 번역사는 도착 텍스트의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 간에 의미적인 등가가 이루어지도록 의도적이고 주관적인 번역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 고려와 번역 전략이 역시 전환 단계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된다.

독자의 기대와 번역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두 요소가 반대로 정보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전달 정보’와 ‘전달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결정되기보다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두 가지 의사결정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달 정보와 전달 방식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다. 번역을 수행하는 동안 번역사가 도착 텍스트를 출발 텍스트와 대조하면서 ‘읽기-전환-쓰기’를 반복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표현을 생산하기 위해 되돌아가서 읽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읽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작성한 텍스트를 다시 고치기도 한다. 이때 전달 정보 또는 미시적 전략, 심지어 거시적 전략까지 이미 결정한 바를 수정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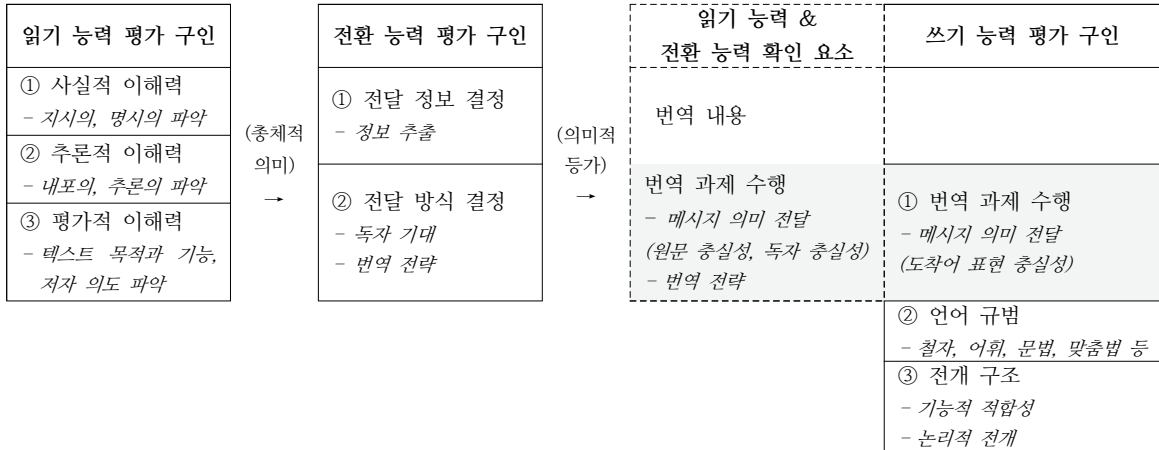
3.3. 쓰기 능력에 따른 평가 구인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쓰기를 쓰기 능력의 구성 요소인 언어적 지식을 쓰기 기술로 구현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인을 ‘언어 사용, 내용 및 과제 수행, 전개 구조’ 세 개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언어적 형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번역에서의 쓰기와 일반적인 쓰기가 공통적으로 갖는 본질적인 특징이다. AB방향 한국어 번역에서 번역사가 전환 단계를 거쳐 전달할 정보와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 바로 한국어로 언어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한국어의 어휘, 문법, 표현 방식 등의 정확성에 신경을 쓰면서 언어적 지식과 언어외적 지식을 모두 활용하게 되므로 표현 단계의 번역 능력이 도착어 쓰기 능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번역 능력 평가를 위한 구인을 한국어 쓰기 평가 구인을 활용하여 설정하면 ‘언어 규범, 번역 내용 및 번역 과제 수행, 전개 구조’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쓰기에서 쓰는 내용이 글쓴이의 생각이지만 번역 글쓰기에서 그 내용이 출발 텍스트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실현된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도착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역 내용은 번역사가 읽기 능력, 전환 능력과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구인을 번역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별 구인 간의 관계를 재정리하고 번역을 위한 쓰기 평가 구인을 밝혔다.

〈표 5〉 한국어 번역 능력 평가 구인 관계도



‘번역 내용’은 읽기 능력과 전환 능력을 반영하는 요소이다. 번역사가 이해하고 추출한 것으로 정보 누락이나 첨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번역 과제 수행’은 주어진 번역 과제에 대해 출발 텍스트의 내용을 담은 만큼 의미적인 측면에서 등가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완수하였는지와 관련된다. 여기서 메시지 의미 전달이 핵심이다. 원문 메시지의 총체적인 의미에 대한 충실성, 대상 독자에 대한 충실성은 읽기 능력과 전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 도착어 표현에 대한 충실성은 도착 텍스트 기준으로 표현력과 명료성을 구현하는 요소이므로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구인이 된다. 또한 번역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번역사의 원칙을 나타내는 번역 전략도 메시지의 의미 전달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어 규범’은 번역의 표현 단계에서 도착 텍스트를 도착어 언어 체계에 맞는 형태로 재구성할 때 언어 규범을 지켰는지와 관련된다. 언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면 의미 전달이나 독자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어 규범에 대한 평가는 주로 단어 차원과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전개 구조’는 ‘언어 규범’과 함께 도착어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구인이다. 전개 구조는 도착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이나 의미적 측면, 형태적 측면보다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텍스트의 구조와 조직, 수사적 지식 등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독립적인 도착어 텍스트로서 내용 전개가 논리적인지 아닌지, 응집력이 있는지, 텍스트의 목적과 기능, 독자를 감안하여 적절한 문체, 서식들을 사용함으로써 텍스트의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상으로 한국어 번역 능력의 하위 능력 구성 요소별로 평가 구인 및 평가 구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언어 숙달도에 따라 언어 능력 평가 구인의 평가 비중과 평가 내용이 달라지듯이 한국어 번역 능력의 평가 구인도 숙달도 정도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번역 능력 평가 구인이더라도 등급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외

6) 번역은 텍스트 간의 의미적 등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메시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작업이다. 전환 단계에서 독자 기대와 번역 전략을 고려한 의미 구성이 모두 등가성을 추구하는 목적하에 메시지의 의미에 대한 충실성에서 출발한다. A.Hutardo-Albir(1990)에 따르면 번역에서 의미에의 충실성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충실성, ‘도착어’에 대한 충실성, ‘대상 독자’에 대상 충실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에만 충실하고 다른 요소를 무시한다면 의미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된다(최정화, 1998:122-123). 따라서 메시지 의미 전달에 있어 원문 메시지에 대한 충실성, 번역문 표현에 대한 충실성, 독자에 대한 충실성을 포함한다.

7) ‘전개 구조’의 기능적 적합성에 대한 구현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번역사가 읽기를 통해 파악한 출발 텍스트의 기능을 도착 텍스트에서 구현하는 경우이며, 하나는 번역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한 텍스트의 기능을 번역사가 구현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번역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읽기 능력과 관련된다.

국인 번역사에게 한국어를 사고언어로 사용하는지여부가 역시 번역 능력의 등급을 구분하는 데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4. 번역 방향에 따른 평가 구인의 적용과 분석

4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번역 학습자가 생산한 번역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국어 번역 능력 평가 구인을 실제 번역 평가에 적용하여 그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4.1. BA 번역 능력 평가의 적용

사례1. 한국어 읽기 능력 평가(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 (1) ST. 전체적으로 비만율이 상승했고 초·중학생보다 고교생 비만율이 높았는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비만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예년보다 초등학생의 성장세는 두드러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여 학생의 키는 각각 152.1cm, 152.3cm로 10년 전에 비해 많게는 2.1cm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TT. 总体来看, 肥胖率上升。和小、初中生相比, 高中生的肥胖率升高, 特别是男高中生的肥胖率超过了20%。与往年相比, 小学生的肥胖率增长势头更为明显。⁸⁾小学六年级的学生男女身高各为152.1cm和152.3cm。和十年前相比增加了2.1cm。

사례2. 한국어 읽기 능력 평가(사실적 이해력, 평가적 이해력), 전환 능력 평가(전달 정보, 전달 방식)

- (2) ST. 경기도 용인시가 무심코 버리던 빗물이나 중수, 하수처리수를 정화한 뒤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수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정책, 강창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 TT1. 京畿道龙仁市在净化无意中扔掉的雨水、重水、污水处理水后, 建立了再利用系统, 正在取得成果。迎来环境日, 姜昌昌记者介绍了节约水资源、减少环境污染的政策。
- TT2. 京畿道龙仁市构建了将无意中扔掉的雨水、重水、污水处理水净化后再利用的系统, 正在取得成果。姜昌九记者为您介绍节约水资源、减少环境污染的政策。
- TT3. 京畿道龙仁市构建的水循环系统正在取得成果, 这个系统是将无意扔掉的雨水, 污水净化后再利用。正好迎来环境日, 姜昌九记者接下来将介绍节约水资源和减少环境污染的政策。⁹⁾

8) 전년도와 비교할 때, 초등학생의 비만율 증가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9) TT1. 경기도 용인시는 무심코 버린 빗물, 중수, 오수처리수를 정화한 후에,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강창구 기자가 수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TT2. 경기도 용인시는 무심코 버린 빗물, 중수, 오수처리수를 정화한 후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수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TT3. 경기도 용인시가 구축한 수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심코 버린 빗물, 오수를 정화 처리한 후 재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강창구 기자가 이어서 수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례3. 전환 능력(전달 정보, 전달 방식)

- (3) ST. 명절이면 불어나는 체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름에 지지고 볶는 음식이 많기 때문인데 재료와 조리법, 조리 기구를 조금만 바꿔도 칼로리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뱃살 걱정 없는 추석 음식 조리법 백도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TT1. 应该会有很多人会担心每逢佳节期间体重的增长。很多都是油煎和炒的食物，稍微改变一下材料，烹饪方法，烹饪工具就能大幅降低卡路里。不用担心长肉的中秋食物烹饪方法，白道仁记者报道。
- TT2. 每逢佳节胖三斤，一到节日，就会有很多人担心体重增加。这是因为节日里吃的食物有很多需要用油煎，所以只要稍微改变材料、烹饪方法、烹饪器具，就能大大降低卡路里。白道仁记者为你介绍无需担心肥胖的节日饮食烹饪法。¹⁰⁾

사례4. 전환 능력(전달 방식)

- (4) ST. 두 개를 견해 시장이 40조원 규모라는 어린이용 콘텐츠시장의 경쟁, 한지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종이에 그린 그림들은 증강현실, AR 기술과 결합해 TV 속에서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LG유플러스가 새로 선보인 IPTV 키즈 콘텐츠입니다. …… 다양한 키즈 콘텐츠가 탑재된 인공지능 스피커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가 흘러나옵니다. …… 자녀를 위한 지출이 늘면서 국내 키즈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02년 8조원에서 2015년 40조원까지 급성장했습니다.
- TT. 这类娱乐学习兼用的儿童用产品在市场上的竞争规模达到了40兆韩币，以下是한지이记者带来的报导。……在纸上画的画与虚拟现实，AR技术结合，就能生动地在电视画面中移动。这是LGU+最新展示的儿童用IPTV。……已经储存了许多儿童内容的人工智能音箱能播放孩子们喜欢的动画片。……随着为子女支出的增加，国内儿童文化信息市场规模从2002年的8万亿韩元迅速增长到了2015年的40万亿韩元。

4.2. AB 번역 능력 평가의 적용

사례1. 전환 능력(전달 정보)

- (1) ST. 前往有“街头表演圣地”之誉的弘大周边，很容易看到通过街头表演彰显自我个性的年轻艺术家们。
- TT1. ‘버스킹 공연의 성지’로 이름을 날린 홍대 주변에 가면 버스킹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 TT2. ‘버스킹의 메카’로 불리는 홍대주변에 가면 버스킹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젊은 예술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례2. 전환 능력(전달 방식)

- (2) ST. 牛郎和织女哭着告了别，不过对他们来说，还是有个盼头的。
- TT1. 견우와 직녀는 울면서 작별을 고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 TT2. 그렇게 두 사람은 울면서 헤어졌는데요. 그래도 그들에게 위안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10) 명절마다 1.5kg씩 쯤니다. 명절만 되면 체중 증가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는 명절 음식 중 많은 것이 기름으로 지져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재료, 조리법, 조리 기구를 조금만 바꿔도 칼로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백도은 기자가 체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절 음식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사례3. 한국어 쓰기 능력(번역 과제 수행)

- (3) ST. 你们违背了跟我的约定, 我惩罚你们, 你们也无话可说了吧?”牛郎和织女哭着向玉皇大帝请求原谅, 但玉皇大帝还是很生气。
- TT1.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 내가 벌칙을 주어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견우와 직녀가 울면서 옥황상제에게 용서를 빌었는데 옥황상제는 화가 났다.
- TT2.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 벌을 내릴지라도 어찌할 수 없겠느냐?” 견우와 직녀는 울면서 옥황상제에게 사정하여 용서를 빌었는데도 옥황상제의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 TT3.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 내가 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겠지?” 견우와 직녀는 울면서 용서를 빌렸지만 옥황상제의 마음은 풀이지지 않았습니다.

사례4. 한국어 쓰기 능력(전개 구조)

- (4) ST. 1. 劳动时间
- 法定劳动时间为一天八小时、一周共计40小时, 不包括休息时间。
 - 令18周岁以上工人夜间劳动(22点至次日6点)或休息日劳动时, 须征得劳动者同意。
 - 对于加班、夜间劳动或休息日劳动的劳动者, 加算标准工资的50%进行支付。
- TT. 1. 근무시간
- 법정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이며, 일주일에 총 40시간.
 - 18세 이상 근무자를 야간근무나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려면 근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 근무자가 연장 근무, 야간 근무 및 공휴일에 근무 시 시급의 50%를 가산 지급함.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번역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구인 체계와 평가 구인 내용을 밝히고 구체적인 평가 구인을 실제 번역 평가에 적용할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번역 평가 구인과 번역 능력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번역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 구인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번역 능력 평가에서 AB방향 시 전환 능력 평가 구인과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 구인을 중심으로, BA방향 시 한국어 읽기 능력 평가 구인과 전환 능력 평가 구인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언어 간 전환 능력은 언어 능력과 구별되는 번역 능력의 본질적인 요소로 전달 정보와 전달 방식에 대한 선택과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번역을 위한 읽기 능력 평가 구인과 쓰기 능력 평가 구인의 내용을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구인을 활용하여 각각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평가적 이해력’과 ‘번역 과제 수행, 언어 규범, 전개 구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정된 평가 구인을 번역 방향에 따른 한국어 번역에 적용하여 그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평가 구인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 김순영(2008), 국내 학부 번역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6-2, 한국통번역교육학회, 5-22쪽. Kim, S. Y.(2008), A Thought on Translation Teaching at the Undergraduate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lation Competence,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Vol 6-2, pp.5-22.
- 김혜영(2009), 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im, H. Y.(2009), Research on the English-Korean Translation Writing,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배만호 외(공역)(2010), 『번역교육 이론과 실제(Sonia Colina, *Translation Teaching from Research to the Classroom*, 2003)』, 서울: 동인출판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서울: 하우출판사.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2014), *The encyclopedia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Hawoo Publishing.
- 유근군(2021), 한국어번역 학습자 번역 능력의 평가 구인 설정에 대한 제안, 교육문화연구 27-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43-162쪽. Liu, Q. Q.(2021), Proposal for Developing the Test Construct of Korean Translation Learners'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7-5, pp.143-162.
- 유근군(2022), 번역 학습자의 중·한 번역물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언어와 문화 18-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65-193쪽. Liu, Q. Q.(2022), Research on the Chinese-Korean Translation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Translation Students, *The Language and Culture*, Vol 18-1, pp.165-193.
- 이미경 역(2021), 『통번역 교육을 위한 기본 개념과 모델(Daniel Gile,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2000)』,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이완기(2017), 『영어평가 방법론』, 서울: 북플랜트. Lee, W. K.(2017), *A Guide to English Language Testing*, Seoul: BOOKPLANT.
- 이향(2006), 번역능력이란 무엇인가? 통역과 번역 8-1, 한국통역번역학회, 177-193쪽. Lee, H.(2006), How to define translation competence? *Conferenc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Vol 8-1, pp.177-193.
- 임형재(2016),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평가-중일 학습자의 자가 평가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2-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7-203쪽. Lim, H. J.(2016), A Fundamental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Korean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Purposes: based on Curriculum Assessment, *The Language and Culture*, Vol 12-3, pp.177-203.
- 임형재·김금숙·허은혜(20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번역학의 이해』, 서울: 하우출판사. Lim, H. J., Kim, K. S., Heo, E. H.(2023), *Understanding Korean Interpreting&Translation Studies*, Seoul: Hawoo Publishing.
- 정연일(2006), 번역능력인증시험의 맥락에서 살펴본 번역능력의 정의, 통번역학연구 10-1,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1-15쪽. Jeong, Y. I.(2006). Translation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Vol 10-1, pp.1-15.
- 홍설영·마승혜(공역)(2017), 『통번역학에서의 시험과 평가(Claudia V.Angelelli, Holly E.Jacobson, *Testing and assessment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2009)』,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허용 외(2012),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험 체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 국립국제교육원. Heo, Y. et al.(2012), *Hangugeoneungnyeoksiheom singyu siheom cheje gaebal mit tadanghwa yeongu(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a New Test Format for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 Allison Beeby(2000), Evaluating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Competence, In Christina Schaffner & Beverly Adab(ed.),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pp.185-198.
- Brunette, Louise(2000), Towards a Terminology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Comparison of TQA Practices, *The Translator* 6-2, pp.169-182.
- Pym, Anthony(1993), *Epistemological problems in translation and its teaching*. Calaceit: Edicions Caminade.

한국어 번역 교육을 위한 번역오류의 유형화 연구

김민영(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번역오류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수용성의 정도에 따라 문제가 있는 의역과 번역오류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할 뿐이다(유수경 2016: 274). 이상화된 좋은 번역(good translation)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Poibeau(2017:7~12)의 정리와 같이, 원문의 주요 특징을 간직하고 있을 것, 원문의 스타일을 유지할 것, 원문의 구조를 유지할 것,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것, 쉽게 읽히고 이해되도록 할 것 등이 요건이 될 수 있다. 바꿔 말해 이 다섯 가지 사항에 위배 되는 각각의 것들을 번역오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번역오류를 연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판단을 넘나드는 방대한 영역 중 일부분만을 쟁점으로 삼는 어려운 과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오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어 숙달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번역학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번역오류에 관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은 팬십(fansub)과 같은 비전문가의 번역은 물론, 전문 번역가의 번역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모어의 한국어 번역에서 보다 명확한 결과물을 양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형태, 통사 차원의 언어적 층위는 물론이거니와 화용적 차원을 넘어선 문화적 요소까지 번역오류 유형화의 기준으로 삼으며 번역오류 연구의 깊이를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좋은 번역과 번역오류에 관한 담론은 기계번역 연구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¹¹⁾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기계번역이 한국 문학작품을 비롯한 전문 텍스트를 번역하는 데 한계를 갖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중 언어 화자인 연구자들의 번역오류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계번역의 질적 향상 및 완성도 높은 번역 결과물의 양산을 견인한다. 더욱이 기계번역의 오류 연구는 평소 기계번역기를 자주 사용하며 한국어를 공부하는 젊은 외국인 연구자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즉 기계번역의 오류를 분석하는 일은 한국어 번역 교육에서 주요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인간 번역에 기계번역까지 망라한 최근의 번역오류 연구 동향을 살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번역 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존재되어 있는 오류 유형화의 틀을 범주 별로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어 번역오류 연구의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의 대상은 국내 등재학술지의 논문이 될 것이다. 이는 질적인 면에서 등재학술지 논문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서열인바, 개별 논문에 따라 충분히 서열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논의의 배경을, 3장에서는 연구 방법 및 대상을 밝힌다. 4장에서는 번역 품질평가에서 오류에로의 접근, 번역 전략 연구에서의 오류 유형화, 기계번역과 오류 연구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1)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2. 논의의 배경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번역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단국대, 명지대, 충남대, 한국외대 등 유수의 국내 대학원에서 한국어 번역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년 1월 현재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번역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표 1〉 외국인 석, 박사 학위과정생들의 한국어 번역 연구 주제

연구 방향	세부 내용
대조언어학적 연구	등가어 문제, 어순, 번역투 등
번역 전략 연구 및 적용	소설 번역 전략, 자막 번역 전략, 웹툰 번역 전략 등
번역 오류 분석	어휘, 문법, 맞춤법 차원의 오류, 문화소 번역오류 등
기계번역 연구	프리 에디팅, 포스트 에디팅, 기계번역 오류 등
번역 품질 연구	평가 기준, 평가 유형, 품질평가의 체계화 등

먼저 대조언어학적 연구는 번역 실무보다는 주로 번역 교육의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등가어의 문제,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번역투에 이르기까지 번역이 언어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양상을 연구하고 있다(서문첩, 2021; 웅웁 티 응옥 히에우, 2021, 쿠만팅, 2021 등). 두 번째 범주는 번역 전략 연구 및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이 영역은 다시 텍스트 유형에 따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는 양상 연구와 실제 적용 연구로 나뉜다. 텍스트 유형에 따른 연구는 문학 장르에서부터, 다큐멘터리 자막, 자막, 웹툰 번역 등 다양하다(왕철, 2021; 오위시, 2021; 저민, 2021 등).

셋째 본고에서 다룬 번역오류에 관한 연구는 어휘, 문법, 텍스트 차원에서부터 기능적 오류까지 그 범위가 넓다. 특히 문화소 번역오류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분야이다. 주요 내용은 3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 범주는 기계번역 연구이다. 이 분야를 따로 범주화하는 것은 해당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계번역기의 비교, 프리 에디팅, 포스트 에디팅 등 여러 분야가 연구되고 있다(자양판, 2021, 한양양 2019 등). 마지막으로 번역 품질 연구는 평가 기준, 평가 유형, 품질평가의 체계화 등에 관한 논의를 아우른다. 주로 번역오류 연구와 함께 엮여 논의된다(마끄마르 델거르, 2011; 장림, 201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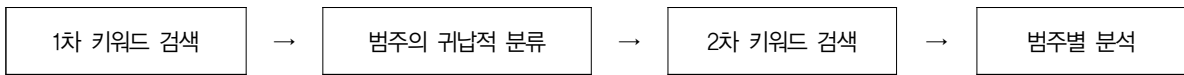
본고는 이 가운데 번역오류의 연구 경향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번역오류 연구는 대조언어학적 접근, 번역 전략, 기계번역, 번역 품질평가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주요 연구 방향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예컨대 번역 전략을 논의할 때, 기존의 번역 전략에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전략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르는데, 전략 적용 전, 문제가 있음을 밝히는 단계가 바로 오류 분석 단계이다. 번역 품질평가에서는 품질평가 자체가 오류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바, 번역오류 연구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번역오류 연구의 지도를 위해, 그간 국내에서 발표된 오류 분석 연구들이 오류를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개별 분석 사례가 아니라 오류 유형화의 경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오류 연구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같은 학술 공동체 안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번역오류 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¹²⁾

12) 번역오류의 개별 사례까지 모두 제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유형 분류의 기준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모두 다루지 못한 세부적 내용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번역오류 연구를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연구 대상의 장르별 분류, 둘째는 언어 쌍별 분류, 셋째는 연구 주제별 분류가 그것이다. 본고는 세 번째 분류인 연구 주제별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의 절차

먼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www.riss.kr)’에서 한국어 번역오류 연구를 검색하였다. 키워드는 ‘번역오류’이다. 이들을 귀납적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2〉 번역오류 연구의 주제별 범주

구분	범주
1.	번역 품질평가 체계화를 위한 오류 연구
2.	번역 전략 제시를 위한 오류 분석 연구
3.	기계번역의 오류 연구
4.	외국어교육을 위한 번역오류 분석

첫째, 번역 품질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해 오류를 유형화하는 연구를 한데 묶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문 번역가의 번역 결과물을 평가할 때 엄격한 오류 판정이 이루어진다. 이때 오류의 유형화는 필수 단계가 된다. 둘째, 앞서 언급하였듯, 번역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 부류가 있다. 번역 결과물의 오류를 분석한 뒤, 이를 문제점으로 삼아 더 나은 번역 방향을 제안하거나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기계번역을 연구하며 그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밝히기 위해 번역오류를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있다. 기계번역이 인간 번역을 대체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오류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넷째, 번역 교육을 위해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향후 전문적인 번역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 숙달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구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2차 키워드 검색을 시행하였다. 번역오류 연구들은 ‘영한 번역’, ‘일한 번역’이나 ‘오역’ 혹은 ‘번역 전략’이라는 키워드 안에 숨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표3〉 범주별 세부 검색을 위한 2차 키워드

범주	2차 키워드
번역 품질평가 체계화를 위한 오류 연구	번역 품질, 번역평가, 번역 연구
번역 전략 제시를 위한 오류 분석	번역 전략, 번역 방법, 번역 양상
기계번역의 오류 연구	구글 번역, 파파고, 바이두 번역, 야후 번역
외국어교육을 위한 번역오류 분석	한국어 번역, 학습번역, 번역 교육

한편, 번역오류 연구를 위시하여, 번역 전략, 번역평가 연구 등은 서로를 넘나드는 영역이라 어느 한 편으로 완벽하게 구분하여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번역오류에 대한 양적 연구는 후행 연구로 삼도록 하고, 본고에서는 번역오류가 어떻게 유형화되고 있는지, 예시 또는 개별 사례가 아닌 그 유형화 기준과 양상에 대해, 가급적 최근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4. 번역 오류 유형화 양상

4.1. 번역 품질평가를 위한 오류 연구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오류 문제이다. 장혜선(2012, 2014)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번역 품질평가 시스템이 제일 먼저 맞춤법과 같은 명백한 오류에 감점을 하고, 기준을 따른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영훈, 구하나(2009)는 토대 평가와 심화 평가를 구분한다. 토대 평가는 원문과 번역 결과물 사이의 ‘용인될 수 없는(Non acceptable) 불일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휘, 문법 등 객관적으로도 오류임이 분명한 언어학적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심화 평가는 ‘용인될 수 있는(Acceptable) 불일치’를 일컫는데, 관점에 따라 오류 여부가 달라진다. 즉 변형이나 변조, 문화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텍스트의 완결성이 어떠한가 등이 심화 평가에 해당한다. 프랑스 소설의 한국어 번역평가를 위해 마련된 이 시스템은 이후 한국어 번역오류의 유형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토대 평가는 황순희(2010), 곽순례(2019) 등에 그대로 적용된다.

〈표4〉 이영훈, 구하나(2009)의 토대 평가 오류 항목

대분류	세부 항목
누락 오류	어휘 누락 오류
	구, 절, 문장 누락 오류
첨가 오류	어휘 첨가 오류
	구, 절, 문장 첨가 오류
표기 오류	오타자 표기 오류
	고유명사 표기 오류
의미 오류	어휘 의미 오류
	구, 절, 문장의 의미 오류
통사 오류	구문 오류
	시제 오류
	기타 문법 오류

그러나 이러한 오류의 유형화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누락과 첨가가 같은 층위이고, 통사와 표기가 같은 층위인데, 의미까지 포함하여 같은 층위로 계열을 이룬다. 예컨대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라는 원문의 번역에서 ‘눈이 빠지게’라는 표현이 누락된 경우, 누락 오류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면에서 의미 오류가 될 수도 있다. 시제가 어휘로 나타나는 중국어나 태국어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어제’나 ‘내일’이라는 어휘 누락이 통사 오류에 중복될 수 있다. 또 번역자의 개입에 따른 불필요한 어휘의 첨가는 의미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즉 이 유형화로는 오류의 분류가 명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장혜선(2014)은 일한 번역물 내에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번역오류를 기술하고 세부 분류한 바 있다. 여러 번역평가모델을 검토하며 각 평가모델에 어떠한 방식이 적용되었는지를 보이고 있다.

〈표5〉 장혜선(2014)에서 소개하는 번역 품질평가 모델

모델	설명	오류 처리
Sical	캐나다 번역국(Translation Bureau) 언어 품질 측정 시스템	언어학적(linguistic) 오류인지 번역에서의 전달 문제(transfer)인지 판단한 후 '심각한 오류(major error)'와 '사소한 오류(minor error)'로 오류를 유형화
CTIC의 번역 평가 시스템	Council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Canada 평가 시스템	번역(이해력-원문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실패했는가) 측면, 언어(표현력-도착어의 문법이나 기타 규칙에 위배되었는가) 측면. SICAL과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서 오류 항목을 각각 감점하는 방식.
GTS	캐나다(온타리오 정부)에서 채택하는 번역평가시스템	400단어 분량의 TT 내에 있는 심각한 또는 사소한 오류의 개수에 따라 TT의 유용성(usability)을 평가하는 방식. TT에 사소한 오류가 5개 이상, 심각한 오류가 1개 이상 있을 경우 '유용하지 않은 텍스트'로 분류.
J2450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에서 기술문서의 표준화된 평가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번역 품질평가 기준.	번역오류를 7개의 범주로 분류. 각 범주에 속한 번역오류는 오류의 경중에 따라 중대한 오류와 사소한 오류로 구분되어 감점이 적용. 각 오류의 개수에 가중치만큼 곱해 '오류가중치의 총합'을 낸 후 마지막으로 ST의 전체 단어 수에서 '오류가중치의 총합'을 나누어 평가.
TES	일본 (주)Hitachi TC의 Translation Evaluation System	9개의 범주와 27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일영(JE) 번역물에 대한 번역 품질평가 및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모델로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은 '오류 개수: TT 단어 수 = x : 1000'으로, 1,000단어당 평균 에러 수에 따라 번역물을 A(최상급)에서 D등급으로 평가한다.
목적론적 평가방식 모델	Larose가 고안. micro/macro/super에 대해 평가하는 다층위 방식의 평가모델 연구.	'7가지 번역규범(criteria)'을 제안. 각 평가항목은 7~10점의 가중치에 따라 '오류 개수×가중치=점수' 식으로 점수가 산출된다.

표5는 정량적 TQA(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의 평가모델로 각각 오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들은 오류를 양적으로 계산하여 점수를 주고 번역 결과물을 평가한다. 그러나 오류 처리의 방식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심각한 오류'와 '사소한 오류'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공신력,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은 정량적 평가방식이므로 '용인될 수 있으나 문제가 있는 오류'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1) ST: 大学里要找一个没恋过爱的学生仿佛是葛优脑袋上找头发。

TT: 대학에서는 연애를 해보지 않은 학생을 찾이란 칠판이 무성한 무덤 위에서 머리카락을 찾는 격과 같았다.

(1)은 이선희(2019: 179)의 예문으로 '葛优(거유)'를 글자 그대로 번역한 사례이다. 이때 거유는 머리카락이 없는 중국의 희극배우로 해당 번역은 현재의 TT보다 유머러스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이선희(2019)에서는 이 번역을 오류로 지적하고 있으나 용인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량적 오류 분석은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한편 표6은 비정량적 번역 품질평가 모델을 정리한 것이다(장혜선, 2014).

〈표6〉 비정량적 평가모델

모델	설명	오류 처리
Sical	캐나다 번역국(Translation Bureau) 언어 품질 측정 시스템	언어학적(linguistic) 오류인지 번역에서의 전달 문제(transfer)인지 판단한 후 '심각한 오류(major error)'와 '사소한 오류(minor error)'로 오류를 유형화
CTIC의 번역 평가 시스템	Council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Canada 평가 시스템	번역(이해력-원문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실패했는가) 측면, 언어(표현력-도착어의 문법이나 기타 규칙에 위배되었는가) 측면, SICAL과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서 오류 항목을 각각 감점하는 방식.
GTS	캐나다(온타리오 정부)에서 채택하는 번역평가시스템	400단어 분량의 TT 내에 있는 심각한 또는 사소한 오류의 개수에 따라 TT의 유용성(usability)을 평가하는 방식. TT에 사소한 오류가 5개 이상, 심각한 오류가 1개 이상 있을 경우 '유용하지 않은 텍스트'로 분류.
J2450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에서 기술문서의 표준화된 평가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번역 품질평가 기준.	번역오류를 7개의 범주로 분류. 각 범주에 속한 번역오류는 오류의 경중에 따라 중대한 오류와 사소한 오류로 구분되어 감점이 적용. 각 오류의 개수에 가중치만큼 곱해 '오류가중치의 총합'을 낸 후 마지막으로 ST의 전체 단어 수에서 '오류가중치의 총합'을 나누어 평가.
TES	일본 (주)Hitachi TC의 Translation Evaluation System	9개의 범주와 27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일영(JE) 번역물에 대한 번역 품질평가 및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모델로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은 '오류 개수: TT 단어 수 = x : 1000'으로, 1,000단어 당 평균 에러수에 따라 번역물을 A(최상급)에서 D등급으로 평가한다.
목적론적 평가방식 모델	Larose가 고안. micro/macro/super에 대해 평가하는 다중위 방식의 평가모델 연구.	'7가지 번역규범(criteria)'을 제안. 각 평가항목은 7~10점의 가중치에 따라 '오류 개수×가중치=점수' 식으로 점수가 산출된다.

표6의 비정량적 번역평가 모델은 텍스트의 의도, 원문과 번역 결과물의 기능적 등가에 관심을 둔다. 최근 오류 연구들은 언어학적 오류의 유형화와 함께 이러한 텍스트 목적과 관련한 여부에 관심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김민영(2018)의 경우, 예능 자막의 오역을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2) 김민영(2018)의 예능 자막 오류 유형

가. 사실 정보 전달의 오류 / 나. 캐릭터 묘사에서의 오류

다. 출연자 평가 기능 오류 / 라. 출연자 심리 대변에서의 오류 / 마. 상황 해설에서의 오류

언어학적 층위가 아닌 자막의 기능 충족 여부가 오류 판별 기준이 되는 것이다. (2라)의 사례를 보자.

(3) 런닝맨 [334회]

ST: 꾸벅

TT: 你好

해당 상황은 상대를 잡아야 하는 예능 게임 중 아이돌 출연자가 선배 출연자를 맞닥뜨린 장면이다. 이때 '꾸벅'이라는 자막이 쓰였는데 한국어의 '꾸벅'은 몸을 많이 숙였다가 드는 모양을 묘사할 때 쓰는 말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공손성이 함의되어 있다(김민영, 2018: 132). 그러나 중국어 번역은 이러한 뜻을 담지 못한다. 즉 출연자의 조심스러운 심리를 대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번역품질 평가에서 바라보는 오류 분석은 결국 오류의 유형화가 언어학적 층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목적에 맞게 번역되었는지, 번역 결과물이 수용할 만한 완성도를 지녔는지까지 나아가고 있음, 즉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번역 전략의 연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나은 번역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앞선 번역의 문제들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번역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어떻게 오류를 유형화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방대한 연구들을 모두 다룰 수 없는 까닭에, 단순하게나마 비문학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로 나눠 고찰해보도록 한다.

4.2. 번역 전략 제시를 위한 오류의 분석

4.2.1. 비문학 텍스트의 오류 유형: 공공기관 번역물을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공공기관 번역 연구들을 중심으로 비문학 텍스트 번역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 관련 번역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부분인바 오류 자체가 매우 심각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오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먼저 황은하(2019)는 오류의 층위를 재고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해당 연구는 국내 공공기관 번역 오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먼저 박경희 외(2007), 김훈밀(2007, 2015)은 유사한 분석 틀을 가지고 실제 분석에 임하고 있는데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4) 박경희 외(2007)과 김훈밀(2015)의 공공기관 번역오류 유형

가. 형식상의 문제 / 나. 통사적 문제 / 다. 정보성의 등가 측면 / 라. 관용적 표현/ 마. 문화소 번역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유형은 같은 층위가 아니라는 문제점을 갖는다. 황은하(201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4가)와 (4나)는 도착어를 기준으로 한 오류 분류이고, (4다)는 원문과 번역문의 정보성 비교를 통해 판정되는 오류이다. (1라, 마)는 원문과 관련된 오류 문제이다. 이러한 오류 분석의 틀을 세우고자 한다면, 표7과 같이 대분류와 세부 분류를 분명히 해야 한다.

〈표7〉 황은하(2019)의 공공기관 번역오류 유형

대분류	세부 분류
원천 지향적 접근	등가어 오류 / 번역 누락 / 불필요한 삽입
목표 지향적 접근	부적절한 문체 / 문장부호 띄어쓰기 오류
번역문 간 비교 접근	일관성 결여

표7은 대분류에서 어떤 차원의 접근인지를 먼저 밝히고 세부적인 오류 분석을 시도하였다. 원천 지향적 접근의 예로는 축자적 번역을 통해 도착어 문화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쓴다든지,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이다. 목표 지향적 접근은 도착어 텍스트 자체의 완성도에서 오류를 찾는 것이고, 일관성 결여는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한 용어가 다르게 분석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5) ST: 사회통합

다양한 TT: 社会综合, 社会统合, 社会融合

통일 방안: 社会融合

(5)는 황은하(2019:219)의 예이다. ‘사회통합’이라는 표현이 여러 형태로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 번역이 아닌 공공기관의 번역이므로 일관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한편, 공공기관 번역물의 오류 분석에 가장 높은 빈도로 인용되는 연구는 박현주(2014)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외국어 웹사이트 자료를 취합, 일차적인 오류 분석을 시행하였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의 언어별 담당 연구원이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수록된 언어별 번역 텍스트를 검토하였고 눈에 띄는 번역오류들을 정리하여 예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예비 분석과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번역평가 기준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 전체의 논의를 거쳐 표 8을 완성하였다.

〈표8〉 박현주(2014)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번역오류 유형

오류 유형	정의
일관성 결여	자료 내, 자료 간 통일성 부재
정보성 결여/ 오역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오역
부적절한 번역	사회문화가 달라 정보 전달에 문제
상위어/하위어 혼용	하위 범주화, 상위 범주화
생략/첨가	정보의 누락 또는 첨가 등의 문제
관용성 위배	언어의 관용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수용성 부족	자연스럽지 않은 도착어
문법 오류	문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
철자 및 문장부호 오류	맞춤법, 문장부호 관련 오류
발음표기 오류	음차 표기 문제

박현주(2014)는 황은하(2019)와 비교하여 오류 층위가 혼재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황은하(2019)에는 없는 문화 차원의 번역 문제, 예를 들어, 사회문화가 달라 정보 전달에 문제가 되는 부적절한 번역이라든지, 언어의 관용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관용성 위배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위어와 하위어의 혼용, 음파 표기 문제 등도 더욱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만하다.

박현주(2014)의 분류는 김혜림, 강려영(2015)으로 이어진다. 이 연구 역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번역오류를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오류 분석 틀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과 유형을 마련하였다.

〈표9〉 김혜림, 강려영(2015)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오류 유형

구분	오류 유형
텍스트적, 언어적, 화용론적 오류	일관성 결여
	정보성 결여/ 오역
	부적절한 번역
	관용성 위배
	수용성 부족
	문법 오류
	철자 및 문장부호 오류
웹 사용성 관련 오류	간체자/번체자 혼용
	영문 콘텐츠 혼재
	편집 오류

이 연구는 웹사이트의 번역오류를 다루고 있는 까닭에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오류 유형을 추가하였다. 즉 언어학적 차원과 웹 사용성 차원으로 대분류를 나누고 세부 분류로 실질적인 오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유수경(2017)은 중한 번역오류 유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신문 기사의 번역오류를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오류 유형의 틀은 다음과 같다.

(6) 유수경(2017)의 번역오류 유형 분류

가. 형태적 층위

- ㉠ 단어 의미 전달의 오류: 개념적 의미, 표현적 의미, 문화적 의미, 다의어 의미 선택
- ㉡ 단어 누락으로 인한 문제 / ㉢ 단어 과잉으로 인한 문제
- ㉣ 음역으로 인한 문제 / ㉤ 직역으로 인한 문제

나. 통사적 층위

- ㉠ 결합 관계의 오류
- ㉡ 논리 관계의 오류: 명시적 논리 관계 오류, 비명시적 논리 관계 오류, 문장부호로 인한 오류

이 연구는 오류를 크게 형태적 층위와 통사적 층위로 나누고, 각각의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형태적 층위의 오류 유형에만 의미 오류를 포함한 사실은 좀 더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통사적 층위인 결합 관계의 오류에 따라서도 의미 전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ST: 各国须强化共同安全的理念, 开展安全合作。

TT: 각국은 공동안보 이념을 갖추고 안보협력을 반드시 펼쳐야 한다.

유수경(2017:270)에 따르면 ‘须’는 술어 앞에서 술어구에 양태 의미를 부여한다. 2개의 술어구가 조동사 뒤에 위치하면 이 조동사는 술어구 전체 해석에 적용된다. 그러나 TT를 보면 ‘반드시’가 두 번째 술어구 출현하여 의미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후행절만 강조되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례는 통사적 층위 범주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결국 의미 해석 관련 오류가 된다. 조동사 한 단어 ‘须’의 사용역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이므로 유형화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2.2. 문학 텍스트의 오류 유형

다음은 문학 텍스트의 오류 분류를 보도록 한다. 문학 텍스트는 오류의 규정이 더욱 어렵고, 그 분류가 다양하다. 일본 문학작품을 다룬 오영은(2002)은 소설의 오류를 귀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8) 오영은(2002)의 일본 소설 번역 오류 유형

- 가. 편집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 단순한 오류
- 나. 사전상의 번역 어휘의 선택 과정에서 생긴 오류
- 다. 지나친 직역이나 의역으로 인한 원문의 왜곡
- 라. 양 언어 간에서의 한자어의 의미의 차이, 또는 그 사용법이나 어감의 차이에서 생긴 오류
- 마. 문법적인 오류에서 생긴 오역
- 바. 원문의 번역 누락
- 사.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오류
- 아. 습관적으로 직역되는 낱말에 대한 문제
- 자. 문학작품의 비유적인 표현 뒤에 암시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온 오류
- 차. 일본어 고유어에 대한 한글 표기와 번역 문제
- 카. 접속사의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
- 타. 번역자가 꼭 달아야 할 각주에 관한 문제

이 분류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언어문화 차이에 따른 번역오류를 다각도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과 한국의 언어문화 차이에서 오는 번역오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학작품이 비문학 텍스트와는 달리 모방과 재창조를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Bassnett, 2002:64).

다음은 시 번역에서의 오류를 다룬 양소진(2019)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연구는 <History of Korean Literature>에 영어로 번역된 한국시들의 오류를 정리한 연구이다. History of Korean Literature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되어 미국 외 유럽 여러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강의 교재(양소진, 2019:378)인바, 번역오류를 분석하여 바로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해당 교재에 번역된 모든 시의 번역오류를 운율 상의 오류와 의미상의 오류로 나누어 분류 분석하였다.

〈표10〉 양소진(2019)의 시 번역오류 유형

대분류	세부 오류
운율 삭제와 주제의 약화	가정 반복의 삭제와 애상의 사랑 약화
	호명 반복의 삭제와 비애의 사랑 약화
시어의 변화와 정감의 오류	의미의 변화와 주된 정조에 대한 오류
	생략 혹은 첨가와 세부 정조에 대한 오류

표10은 시의 번역오류 유형이 비문학 텍스트의 오류 유형의 틀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주제의 약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9) ST: 먼 훗날 당신이 차르시면/ 먼 훗날, 당신이 저를 찾아 해매시면
그세에 내 말이 「니젓노라」/ 저는 당신에게 잊었다고 말할 거예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당신이 속으로 저를 탓하시면, /「못척그리다가 니졌노라」/
 나는 “당신을 아주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고 말하겠어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그리고 그래도 당신이 저를 나무라시면
 「밋기지안아서 니졌노라」/ “당신을 믿을 수 없어서, 나는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닛고/ 오늘이나 어제도 잊을 수 없고
 먼 훗날 그제에 「니졌노라」33)/ 「면후일」 그때에 “나는 잊었노라”¹³⁾
 - 김소월, 「면후일」, 1925.

TT: Long from now, if you should seek me, / I would tell you I have forgotten.
 If you should blame me in your heart, / I would say “Missing you so, I have forgotten.”
 And if you should still reprove me, / “I couldn’t believe you, so I have forgotten.”
 Unable to forget you today, or yesterday, /but long from now “I have forgotten.”

양소진(2019:385)에 따르면 ‘나무라면’이 반복되지 않고 이 시어가 2연과 3연에서 각각 ‘blame’과 ‘reprove’로 번역된 까닭에 “의미의 운율 상의 울림이 사라지고, 의미의 강화도 사라졌다.”라고 지적한다. 이를 오역의 한 형태로 본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시 번역에서의 오류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에게 단순 언어학적 차원을 넘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논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학 텍스트가 갖는 특성인 비유법과 관용표현에 대한 오류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선희(2019)는 중국 소설 <삼중문(三重門)>에 나타나는 번역오류를 분석하였다. 이 작품은 비유와 관용표현이 빈도 높게 쓰인 소설이다. 이 소설의 번역오류 유형은 첫째 어휘와 관련된 오역, 둘째 문법구조와 관련된 오역, 셋째 부연 설명의 부족이나 생략으로 인한 오역이 그것이다. 이 연구의 오류 분석 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이선희 2019의 중국 소설 번역오류 유형

오류 유형	세부 내용
어휘 관련 오역	다의어, 고유명사, 관용어, 이합사, 비유어의 잘못된 해석
문법 관련 오역	어절, 통사구조의 몰이해(주술, 술목, 술보 관계의 오역, 연동 구조 및 사역 구조의 오역, 어절 사이의 의미 관계 오역, 문장 간 의미 관계 오역 등)
부연 설명 부족 및 생략으로 인한 오역	

이 가운데 부연 설명 부족 및 생략으로 인한 오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이선희, 2019:208).

(10) ST: 林雨翔以为这一刀算是狠的, 按理不会成功, 所以留了一些箴言佳句准备盘旋, 不想服务员一口答应, 林雨翔后悔已晚。

TT: 위상은 상식적으로 들어주기 어려울 만큼 사납게 깎아버렸다고 여기고 있는데, 예상외로 판매원이 대뜸 승낙해버리자 후회하기에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여서……

한국어 번역에서는 원문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번역이 생략되어 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잠언 몇 개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번역문이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 ‘위상이 값을 깎은 후, 성공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잠언 몇 개를 준비해 놓고 계속 흥정을 이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판매상이 바로 승낙해버려서 값을 더 깎지 못

13) 양소진(2019)에서는 번역문과 비교하기 쉽도록 영문 번역에 맞춰 원문의 구성을 이와 같이 바꾸었다.

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해석되어야 할 문장이 어떤 극적 요소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 분석에서 아쉬운 것은 비유와 관용표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학적 분류 방식으로 오류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비유와 관용표현은 표층적 의미 전달이 아닌 함축적 의미 전달이 중요한바, 보다 의미적, 문화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음이 아쉽다.

4.3. 기계번역 오류의 유형 분석

기계번역의 오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번역기 자체가 만들어내는 오류의 검열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를 인간이 분석하는 방법이다. 아직은 전자의 방법만으로 완벽한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 특히 문학작품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기계번역의 오류 연구도 연구자들이 행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 절에서는 기계번역과 관련된 몇 편의 오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기계번역 오류를 귀납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윤정(2018)을 보도록 하자.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12〉 김윤정(2018)의 텍스트별 번역오류 유형

오류 유형	텍스트 유형		
	성어	대화문	기사문
필수성분 누락	√	√	√
과도한 유추	√		
발음 표기	√		
어휘 의미 오용	√	√	√
어휘 의미 나열	√		
고유명사 오용	√	√	√
관용표현 미인식		√	
문화소 오용			√
구문 왜곡			√
논리 오용			√
기사 형식 부적용			√
기타		√	

표12는 세 유형의 텍스트를 두고 각각 어떠한 오류 유형이 있는지를 살핀 목록이다. 관용성이 강한 성어에서부터, 대화문, 기사문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텍스트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분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관용표현은 문화소에 포함된다.¹⁴⁾ 고유명사 또한 문화소에 포함된다. 즉 몇 가지 분류가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몇 논의들처럼 층위의 조정도 되어 있지 않다.

기유미(2018)는 한국어, 중국어 쌍의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로, 파파고 및 구글 번역기를 통해 번역기별, 문형별, 세부 어휘 항목별로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오류의 세분화를 위해 기계번역의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14) 문화소의 하위 분류에 관해서는 최근의 논의를 종합하여 문화소의 범주를 연구한 조재범(2015)을 따르고자 한다.

〈표13〉 기유미(2018)의 기계번역 오류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대 분류	중 분류	세부 분류
평가 항목1	기본 문형의 성립 여부	기본 문형 미성립, 어순 오류, 핵심어 누락, 의미 전달 문제
평가 항목2	선택의 적합성 여부	핵심어 품사 선택 오류 및 누락, 핵심어 의미 부적합
평가 항목3	핵심어 외의 기타 문장 성분 오류 및 누락 여부	부사, 대명사, 수사, 양사, 조사, 개사, 연사, 어기사의 선택 오류, 누락, 위치 오류
평가 항목4	불필요한 단어의 부가 여부	
평가항목 모두 감점되었으나 하나의 단어라도 바르게 출력된 경우		
출력된 문장의 모든 단어가 오류인 경우와 출력된 번역물이 없을 경우		

이러한 분류는 평가항목이긴 하나 기계번역 오류 분석의 틀을 형성할 수 있어 유의미하다고 본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평가항목1의 의미 전달 문제는 평가항목2, 3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둘째, 핵심어와 비핵심어 구분이 쉽지 않다. 때로 부사, 대명사, 조사가 문장 해석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셋째, 속담과 같은 관용적 표현의 번역은 평가할 항목이 없다. 보다 심도 있는 분류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서보현, 김순영(2018)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연구는 기계번역의 오류의 유형을 고찰한 연구이다. 즉 본고의 목적과 가장 인접한 연구인바, 이 연구를 중심으로 기계번역의 오류 분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연구는 기계번역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번역기 개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문제로 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기존 번역학 분야의 품질평가 기준인 정확성(Accuracy), 가독성(Fluency)¹⁵⁾, 통사구조(Syntax), 오타자(Typo)를 큰 범주로 하여 세부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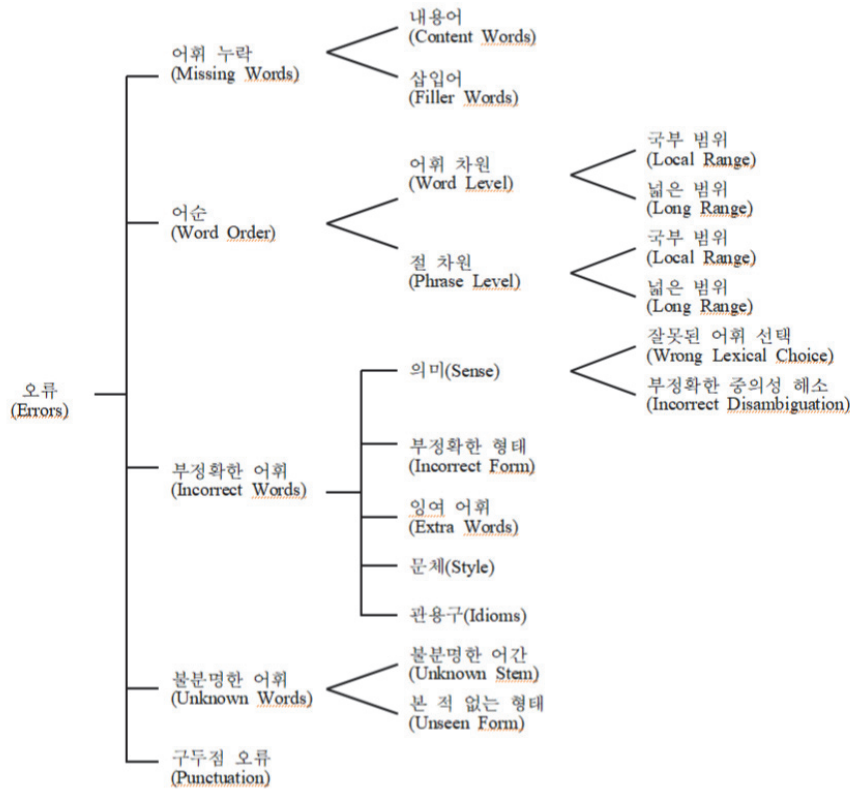
〈표14〉 서보현, 김순영(2018)의 오류 유형

정확성(Accuracy)	부정확한 의미(Incorrect Meaning)
	누락(Omission)
가독성(Fluency)	맥락 오류(Contextual Error)
	단어, 절 배열 오류(Wrong Words/Phrase Order)
통사구조(Syntax)	미완성 문장(Incomplete Sentences)
	기타 문법 오류(Other Grammatical Errors)
오타자(Typo)	-

그러나 이 분류에는 문제가 있다. ‘Fluency’의 번역을 ‘가독성’으로 한 것은 기존 번역 품질평가 연구에 반한다. 진용주, 서보현, 김순영(2018)에서는 미셸 외(Mitchel et al. 2013)에 기대어 포스트에디팅 품질평가에 사용한 ‘유창성(fluency)’, ‘이해가능성(comprehensibility)’, ‘충실성(fidelity)’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다만, 용어의 혼재를 막기 위해 ‘이해가능성’을 ‘가독성’으로 대체 사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즉 유창성은 영어의 표준 문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는 기준이고, 충실성은 원문의 정보가 번역문에 충실하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며, 이해가능성은 메시지가 이해하기 쉬운 것인지를 묻는 기준이다. 즉 서보현, 김순영(2018)의 오류 유형 분류는 대분류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호숙(2018), 자양판(2019) 등 후속 연구에 영향을 끼쳐 오류 분석 틀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해외 연구인 빌라(Vilar) 외(2006)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오류 유형은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와 영어 쌍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15) Fluency의 번역이 잘못되었으나 논의를 위해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림2〉 빌라 외(2006)의 기계번역 오류 유형

이 분류에서 어휘 누락은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로 필수적인 말이 빠지면 내용어 누락 오류, 필수적이지 않은 말이 누락 되면 삽입어 누락 오류로 나뉜다. 어순 오류는 어휘적 차원과 절 차원으로 나뉘는데 한국어에 적용하면 구문 차원과 절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법하다. 그리고 그 오류는 각각 국부적인지 넓은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나뉜다.

부정확한 어휘 오류는 원천텍스트의 어휘에 대응되는 목표어가 없는 경우, 올바른 번역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 오류는 크게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을 갖는데, 첫째, 문장의 의미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시 잘못된 어휘 선택에 의한 경우와 잘못된 중의성 해소의 경우로 나뉜다. 잘못된 중의성 해소의 경우는 문장의 명시화에 실패한 경우이다. 둘째, 의미는 통하지만 어휘의 형태 변화가 부적절한 경우이다. 한국어에 적용해 본다면, ‘*나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다.’의 ‘*재미있은’이 될 것이다. 셋째, ‘초가집’처럼 잉여 어휘가 있는 경우이다. 넷째, 문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오류가 부정확한 어휘 오류의 하위 분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적어도 한국어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한국어의 경우 문체를 결정하는 서법은 어휘 차원이 아닌 문장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섯째, 관용구의 잘못된 선택이 있다.

다음 불분명한 어휘를 살펴보자. 이는 크게 불분명한 어근과 형태로 나뉜다. 한국어에 적용해 보면, ‘사졌다’라는 어휘가 있을 때, 이것이 ‘사귀었다’를 잘못 쓴 것인지, 다른 어간(stem)이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이에 적절한 예로 보인다. 본 적 없는 형태(Unseen form)는 ‘간격이 조와요.’처럼 ‘좁다’를 불규칙으로 착각하여 번역하는 형태가 예로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구두점 오류는 언어마다 사용하는 문장 기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어의 쉼표와 중국어의 쉼표가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예가 되겠다.

5. 결론

이상으로 번역 결과물의 오류 유형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번역 품질평가 측면에서 오류가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보았고, 다음으로 번역 전략적 관점에서 오류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문학, 그리고 문학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계번역의 오류 분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계번역은 시스템 자체의 오류 검열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오류 분석 또한 필요한바, 연구자들이 어떠한 분석 틀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상에서 보았듯, 오류를 판단하고 분류해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류 판정은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평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 결과물의 오류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오류 유형화의 틀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한국어 번역 가운데서도 번역오류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오류 분석의 틀을 보이고 각각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음의 내용 또한 번역오류의 유형화에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이 오류 원인을 제공하는지 살펴야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번역오류 연구를 위해 해외 연구의 오류 분석 틀을 수정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어만의 특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비문학 텍스트의 예를 다양하게 다루지 못했지만, 비문학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특성이 존재함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특성을 오류의 유형화에 포함해야 한다. 셋째, 문화소 번역오류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소는 관용어, 속담 등을 포함, 그 사회문화의 사회적 방언 및 고유지명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의 번역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오류의 유형이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넷째, 문학 장르 번역의 오류 분석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소설, 시, 희곡 등의 번역오류는 자국화, 이국화와 같은 전략이 집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정교한 분석과 판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앞서 보았듯, 의미의 약화와 같은 내용을 오류에 포함할지의 여부 또한 속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주요한 내용들은 같은 논제를 고민하는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로 발표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곽순례. (2019). 「한국어-아랍어 번역 교육을 위한 번역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23(3): 41-70.
- 기유미. (2018). 「한중 기계번역 오류의 문형별 비교분석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와 구글 번역기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74: 3-32.
- 김민영 (2018). 「한국어 수업을 위한 TV 자막 활용 방안 연구 -예능 자막의 중국어 오역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119-139.
- 김윤정 (2018). 「구글 번역 기반 텍스트 유형별 중한 기계번역 오류 현황 분석」 『중국어문학지』 65: 321-355.
- 김혜림, 강려영 (2015). 「한국 공공기관 중문 웹사이트 오류 분석」 『번역학연구』 16(3): 55-84.
- 김훈밀 (2015). 「국내 공공번역 실태와 표준화 현주소」 『통역과 번역』 17(2): 1-25.
- 박경희, 정호정, 염행일, 신지선 (2007). 『국가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 박현주. (2014). 「공공번역 결과물 오류 유형 분석 - 공공기관 영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6(1): 51-80.
- 서보현, 김순영 (2018).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유형 고찰」 『번역학연구』 19(1): 99-117.
- 오영은. (2002). 「일본문학의 오역의 제문제 -夏目漱石의 <それから>의 경우」 『일어일문학』 18: 267-290.
- 유수경 (2017). 「중한 번역 오류의 특징 고찰 및 유형 분류 - 신문보도문 분석을 기반으로」 『중국어문학지』 61: 253-286.
- 이선희 (2019). 「중국 소설 《三重门》 속 비유와 관용표현의 한국어 번역 오류 분석」 『동아인문학』 49: 173-215.
- 이영훈, 구하나 (2009). 「프랑스명작 단편소설 번역평가 - 알퐁스 도데의 <상기네르의 등대 Le Phare des sanguinaires>의 경우」 『통역과 번역』 11(1): 115-159.
- 장혜선 (2014). 「번역평가를 위한 번역오류 기술 및 분류에 관한 소(小)연구 -통번역대학원 수강생들의 일한(JK) 번역물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62: 99-132.
- 장혜선 (2012). 「진단적 번역품질평가(TQA) 모델 구축을 위한 오류항목 분류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59: 143-178.
- 조재범 (2015). 한영 자막 번역과 문화소 번역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진용주, 서보현, 김순영 (2018). 「프리에디팅(pre-editing)이 기계번역 품질에 미치는 영향 고찰 : 유창성, 충실성, 가독성 비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3): 27-64.
- 황순희 (2010). 「대학의 번역강의 내용개발 연구 - 프랑스어 중급 학습자의 번역물 평가 분석을 중심으로 -」, 『프랑스어문교육』 33: 389-429.
- 황은하 (2019). 「한중 공공번역의 오류 분석 :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안내책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1): 201-225.
- Bassnett, S. (2002). *Translation Studies*(3rd 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oibeau, T. (2017). *Machine translation*. Boston: MIT Press
- Vilar, D & Xu, J & D'Haro, L & Haro, D & Ney, H (2006) 'Error analysis of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output',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European Language Resources Association, 697-702.

외.

한국 번역사(史)에 대한 시점(始) 연구

- 사회 조직이론의 시점(視)을 통한 시점(時)의 논의 -

임형재(한국외국어대학교) · 리번켈빈(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번역사(翻譯史)는 번역의 역사라는 광범위한 개념과 함께 다루어지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국가)과 언어권에 서 통역 및 번역이 언제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인지되었는지를 조명한다. 따라서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발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사회 변화 속에서 번역의 출발점을 관찰하고 검토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이다.

인류 언어 간 의사소통에서 통번역의 역사적 접근에 대한 논의를 수행한 연구자 중, 조지 스타이너(George Steiner)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조지 스타이너는 그의 저서 『바벨탑 이후(After Babel, 1975)』에서 번역에 대한 전체적인 통시적 흐름을 검토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바벨탑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류 언어 사용에서의 번역 역사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Bassnett, 1980, [2014:51-52])¹⁾.

또한, 수잔 바스넷은 번역학의 내용학적 영역을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 범주로 번역사(History of Translation)에 관한 주제를 포함시켰다(Bassnet, 1980, [2014:19]). 이 외에도 베르만(Berman)은 그의 연구에서 "번역의 역사를 조사하는 것이 현대 번역학의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하며, 번역사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antoyo, 2006:12, 재인용).²⁾

이처럼 70~80년대, 번역학을 고민하던 여러 학자들은 번역학의 학문적 접근을 위한 시작을 번역사에서부터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번역학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 번역사는 인류 언어의 번역사와 함께 인류의 언어 사용에서 파생된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의 사용과 문자 기록 등 다양한 언어 활동이 포함된 아시아의 교류 중심지 역할을 고대부터 수행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의 유산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번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 번역사에서 한 흐름으로서 다양한 업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번역에 관한 통시적 시각의 역사적 연구는 대체로 한자학이나 한국어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 방식을 조사해보면, 발견된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통시적인 문헌 연구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연구자들 역시 한국어학 분야에서 중세 한국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어사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을

1) "George Steiner, in *After Babel*, divides the literature on the theory, practice and history of translation into four periods."를 참조.

2) 영어 원문 : "The construction of a history of translation is the first task of a modern theory of translation."를 참조.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 방식을 살펴보면, 한국 번역사 연구는 통시적 연구의 시각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주요한 논의의 방향은 역사 자료의 해제와 한국어학, 한국어사적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료(史料) 중심의 역서(譯書) 연구를 통한 번역 연구 관점은 자연스럽게 사료를 통한 역서 연구의 특징을 따라, 한국어학이나 한국어사의 사료 해제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했는지를 중심으로, 역서의 해제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번역의 행위가 ‘어떻게(how)’, ‘왜(why) 발생하든지, 또 역서가 필요하거나, 역서가 만들어진 이유와 관련된 사건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분석은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는 사료 중심의 사(史)적 연구의 논의와 해석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 번역에 관심을 가진 학자라면, 한 번쯤은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것이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해 한국어의 번역사(史)의 기존 연구 관점에 따라, 번역된 사료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결국 ‘조선시대(언제)에 세종대왕(누가)이 훈민정음(무엇을)을 창제한 것부터’라고 하는 가장 일반화된 결론으로 논의가 닿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통시적 관점과 견해는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 안에서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출발해서, 심지어는 무엇이 번역이며, 번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이르는 근본적인 논점의 문제까지 노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관점에서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왜’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전환점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간단하지 않은 논의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에 대한 기존 연구와 논의의 관점은 정의적으로나 상징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번역학에서 정의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현대적 관점을 수용하여, 보편적인 개념의 지역적 번역사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조직이론을 번역사 연구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본 한국어 번역사의 출발점은 어떤 점에서 기존 연구와 부합되거나 동기화될 수 있는지가 본 연구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 안에서 문화 간 소통을 위한 한국 사회의 번역사의 시작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조직이론

2.1. 번역사를 위한 새로운 관점(觀點)의 필요성

최근 한국어가 글로벌 언어(global language)³⁾로서의 위상을 확보해감에 따라, 21세기 다양한 통역과 번역 환경에서 자국어와 함께 한국어의 통번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⁴⁾ 그러나 이들이 던져주는 ‘한국어 번역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땅한 답을 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을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지역의 번역사에서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언제부터 한국에서 주변 문화 간, 주변 언어 간의 번역에 대한 체계적(systematic)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 질문을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조금만 뒤집어 보면, 한국에서는 ‘왜’ 통역과 번역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그뿐만 아니라,

3) Cho, S. et al.,(2006)은 (1) 한국어 학습에 대한 국가 표준, (2) K-12 관점을 위한 SAT, (3) 국가 보안 및 세계 경제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어의 글로벌 언어 위상을 논하였다.

4) 통역과 번역 상황에서 한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B언어로 사용하여 통역과 번역을 수행하는 외국인.

이 질문에는 한국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통번역의 필요성과 요구를 인식하게 되었는가와 관련이 된다.

통번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의 살피는 일반 번역학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통역과 번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시작을 논의하기 위해, 번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핼(Pym, 1998:16-17)은 번역사에 대한 연구를 설명하면서, ‘번역사를 연구하는 이유(reasons for doing translation history)’로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 (1) 첫째, 번역사(史)는 인문학과 관련한 분야에서 개별 문화의 발전을 기술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⁵⁾
- (2) 둘째, 번역사(史)는 번역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언어 연구와 더불어 문화 분야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⁶⁾
- (3) 셋째, 번역사(史)는 번역가, 협상가, 거래자 등 사회·문화적 중개자에 대한 이해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⁷⁾

위의 핼의 관점을 통해 본, 번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크게 번역사를 보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번역가를 비롯한 중개자 집단에 유의미한 번역사의 연구는 통시적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n)’, ‘무엇을(what)’ 등에 관한 사료 중심의 행위적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에서는 이러한 번역사의 흐름을 추동하는 공시적(共時的)인 상황에서 개별 사건의 역동적(dynamic)인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나 지역의 번역사를 논하는 과정에서 사료를 주요한 근거하는 통시적(通時的)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다만 여기에서 통시적 사료만을 중심으로 한 번역사 연구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료 중심의 통시적 연구는 제한된 역사학적, 서지학적 결과물이 연속되는 사건의 합리적인 흐름을 보여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하고자 하는 일반 번역학 개념의 번역사는 사회와 문화적 중개 행위로서의 ‘번역’을 인문·사회학적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번역사는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이 함께 연결되는 보편적 기술의 관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번역학은 언어권별 번역학(개별 번역학) 연구로 구성되며, 통번역은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언어와 문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네트워크화(networkization)’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기술하고자 하는 한국어 번역학의 출발점에 대한 논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일반 번역학 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에 질문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 (1) 첫째, 기존 한국어 번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인 관점의 연구 방법이 존재할 것인가.
- (2) 둘째, 보편적인 번역학 연구 관점은 기존의 한국어 번역사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나 최근까지도 국내에서는 보편적인 번역학 관점을 가진 한국어 번역학의 통시적 연구나 역사적 사건 중심의 연구, 또는 번역사의 출발점을 다루고자 하는 연구 사례는 많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번역학에서 잘 알려진

5) 영어 원문: “Translation history can fulfil a service function with respect to the humanistic disciplines concerned with describing individual cultures.”를 참조.

6) 영어 원문: “Second, translation history can provide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prove useful for policymakers in the field of general language and culture as well as translation.”를 참조.

7) 영어 원문: “Translation history can be of indirect service to social groups of intermediaries, be they translators, negotiators, traders or whatever.”를 참조.

번역사 연구 방법으로 핼(Pym, 1998:19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번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프레임워크(framework)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론은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핼은 번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인문학적, 사회학적인 다양한 관점을 다룰 수 있는 학제 간 연구의 부족함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⁸⁾ 사실 핼의 번역학에 대한 기술 관점은 번역학이라는 단일 범주를 넘어, 인류의 역사에서 통역과 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학문적 관점의 인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번역학과 학제 간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번역사를 다시 살피고, 그 출발점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된 한국어 번역사의 전통적인 관점을 검토하고, 학제 간 연구의 관점을 아우르는 새로운 한국어 번역사의 연구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시작은 기존 한국어 번역사에 관한 한계를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사회학의 조직이론을 도입하여,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번역사의 출발점을 찾아보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 조직이론으로 한국어 번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와 ‘왜’ 출발점으로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편적인 번역학의 통시적 연구 방법과 분류 기준으로 설명되는 한국어 번역사의 출발점을 살피고자 한다.

2.2. 번역사를 살피는 다양한 관점의 검토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연구 목적과 필요에 맞는 연구 방법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사 연구 또한 다른 학문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거한 연구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번역학의 어떤 연구에서도 ‘번역의 역사(translation history)’ 또는 ‘번역사(translation historiography)’에 대한 보편적 방법론을 논의하는 구체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뿐만 아니라, 1972년 홈즈(Holmes)가 처음으로 제시한 번역학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방법인 ‘번역학의 도해(map of translation)’에서는 ‘번역사’라는 통시적 연구 분야에 대한 분류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번역사가 번역학이라고 하는 학문 속의 어딘가에 용신(容身)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능성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핼(Pym, 1998:1)은 홈즈와 그의 관점을 따르는 이들(적어도 홈즈의 학문적 도해와 그의 변형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번역의 역사적 연구를 다룰 수 있는 명시적인 학문적 술어조차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⁹⁾

이와 관련된 한국 내 연구에서는 최효은(2016:32)이 그의 연구에서 번역사의 필요성과 연구의 당위성, 나아가 번역사의 연구의 위상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다. 그는 번역학에서 번역사의 연구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이나 당위성과는 떨어져 버린 연구 현실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번역학에서 여러 언어와 지역의 번역 역사를 다루고자 했던 연구자들은 학문적인 접근 과정에서 종종 한계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핼(Pym, 1998)이 번역사 연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면서, 번역학의 관점에서 본 번역사의 포괄적인 개념과 범주를 설정해 주었고, 이 외에도 몇 가지 번역사의 연구 방법을 정리하여 번역사 연구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열어 주었다.

여기에서 핼은 보편적인 번역학 관점에서, 번역사를 번역가와 번역 사료 사이에서 그들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인본주의적 연구의 통합된 영역¹⁰⁾이라고 설명하였다(Pym, 1998:4). 그리고 번역사의 포괄적인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핼

8) 영어 원문: “Translation history need not be identified with any one academic institution; it can be sold to several.”를 참조.

9) 영어 원문: “Yet the curious fact remains that neither Holmes nor his commentators – at least those subscribing to the map and its variants – explicitly named a unified area for the historical study of translation.”를 참조.

10) 영문 원문: “I would like to see translation history as a unified area for the humanistic study of human translators and their social actions,

(1998:5)은 ‘번역사는 번역 분야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록해 놓은 일련의 담론’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사의 분야는 번역이나 비번역, 번역 또는 비번역의 효과, 번역에 관한 이론, 그리고 인과적으로 번역과 관련된 현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행위자와 그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번역사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Pym(1998)은 번역사 연구에 깊이 관련되는 3가지 관련 학문 분야의 관점을 설명하였다.

(1) 번역고고학(translation archaeology)의 관점

핼(1998:5)의 연구에서 제시된 번역고고학은 사료에 근거하여, 육하원칙(5W1H)에 의거한 근거주의 연구라고 간단하게 개괄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번역고고학의 관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누구를 위해 번역했는가?’라는 비교적 길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답과 관련된 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¹⁾ 더불어 “번역고고학은 단순히 복잡한 수사적 작업이나, 번역의 자취를 따라 그리는 그림을 넘어 번역이 다른 영역에 미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Pym, 1998:5).

이는 번역에 관한 발견된 사료의 기록적인 정리(서지학적 정보)와 그 사료에 근거해서 번역의 역사에 담긴 사건에 대한 진술들이 가진 사료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핼의 번역고고학 관점은 앞서 한국 번역사의 연구로 계속 언급된 한국어학이나 한국어사의 사적, 통시적인 연구 관점을 포함하면서도 좀 더 넓고 보편적인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2) 역사비평론(historical criticism)적 관점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역사비평적 관점에서의 번역사’이다. 이는 ‘번역의 변화와 발전을 추동하는 사회적 사건이나 행위를 포함한 평가의 담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용어로서의 역사비평은 역사학을 기반으로 한 기록에 대해 현대적 평가와 해석이 담긴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핼(1998:5)은 번역에서의 적용되는 역사비평은 과거의 번역물에 현대적인 가치평가(values)를 직접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¹²⁾ 즉, 전통적인 용어로서의 역사비평은 철학이 진보의 개념을 도덕적 가치로 활용하는 경우, 그 시기의 일반적인 역사학의 관점을 함께 다룰 수 있지만, 과거의 번역에 대해 현대적 가치를 직접 적용하는 비판적 연구는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번역사 연구에서의 역사비평은 해당 번역 사료가 가진 사실적 의미와 함께 사료를 둘러싸고 있는 공시적인 평가 기준 안에서만 분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3) 역사학적 해제(explanation)

역사적 사실로서의 해제는 번역사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해제는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번역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event)를 번역사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고고학적인 사료가 왜, 언제, 어디서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술하는 해석적 연구와 함께 사적인 의의와 환경의 기술이 포함된다. 또한, 번역고고학과 역사비평은 대부분 개별적인 사실과 해당 텍스트에 관한 것인 반면에, 해제는 통번역의 사실과 사건, 어떤 이벤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세한 인과관계, 특히 사회적 위세 관계와 관련되었는지는 원인과 결과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의 관점은 개별 번역자의 번역 행위를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진 행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¹³⁾

both within and beyond their material translations.”를 참조.

11) 영문 원문: “Translation archaeology is a set of discourses concerned with answering all or part of the complex question ‘who translated what, how, where, when, for whom and with what effect?’”를 참조.

12) 영문 원문: “In traditional terms historical criticism might broadly cover the philological part of historiography, if and when philology conjugates notions of progress as moral value. Yet the resulting criticism cannot apply contemporary values directly to past translations.”를 참조.

13) 영문 원문: “Explanation must be concerned with the causation of such data, particularly the causation that passes through power relationships; this is the field where translators can be discovered as effective social actors.”를 참조.

이상과 같이 번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분야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사료 중심의 한국어 번역사 연구 논의를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관점만으로도 기존의 한국어 번역사에 대한 연구의 논의가 비교적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어 번역사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료를 찾아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료 중심의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해석해 내지 못한 부분을 위해서 또 다른 사료를 새로이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한국어 번역사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 번역사 연구는 한국어의 사용 상황과 번역 사료가 보여주는 근거 중심의 기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는 번역사 연구의 연구 대상일 뿐, 그 자체가 번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사료 자체에 의존하여 사료만을 주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기술한다면, 번역사 연구의 범주는 축소될 것이고, 논의의 범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번역사에 던지는 질문은 사료 중심 연구의 답을 구하고자 하는 “한국 번역사에서 무엇을 그 출발점으로 보아야 하는가(What is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translation history?)”라는 질문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How to view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translation histor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을 왜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Why we can view that as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translation history?)”라는 질문을 통해 사회적 상황 중심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사의 출발점을 검토하는 것 외에, 번역사와 관련된 연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핼(1998:193~196)은 ‘학제 간 융합적 관점’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번역사 연구의 초점은 과거의 해석만이 아니라 현재의 해석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러한 견해는 번역사의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 방법 외에도 최근 학제 간의 다양한 융합적 관점을 연구에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번역사를 살피기 위해 핼의 세 가지 분야의 융합적 관점에 사회 조직이론을 더하여, 한국어 번역사의 출발점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3. 한국어 번역사의 시점(始點)

3.1. 한국어 번역사의 분석과 한계

일반적으로 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통시적 관점의 연구를 의미하며, 대부분 역사적 흐름 안에서 그 변화의 양상을 구획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번역학의 출발점에 관한 연구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번역학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언어와 지역의 출발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서구 번역학의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서구 번역학에서는 그 통시적 연구를 고대, 중세, 문예 부흥기(復興期), 근대, 현대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 리고 ‘고대는 로마의 최초의 번역가인 안드로니쿠스(Livies Andronicus 기원전 284?~204)’, ‘로마의 연설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43)’, ‘『성경』을 번역한 세인트 제롬(St. Jerome, 347~420)과 세인트 아우구스틴(St. Augustine 354~430)’ 등 고대 대표적인 번역가가 그 시작을 열었다(남성우: 2016:25).¹⁵⁾

14) 영문 원문: “Our arguments concern the present; our debates are formulated and carried out between active interests in the here and now.”를 참조.

이와 달리, 한국 번역사에 관한 유명우(2002:32)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어 번역사의 시대적 구분은 ‘한자차자표기(漢字借字表記) 번역 시대’, ‘언문(諺文) 번역 시대’, ‘한글 번역 시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번역이나 문자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한자의 위상(位相)이나 한자에 대한 차자표기법, 그리고 언문이나 한글의 사용과 같은 복잡한 문자 체계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기문(1961, [201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언문이치(言文二致)의 문제’나 ‘한자 차자표기’를 번역학의 관점에서 다른 언어 간의 번역의 문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어 번역사 출발점이나 번역의 시작점(始點)에 대한 논의와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자(한자 사용이나 한글의 창제)와 관련된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서구의 연구 관점만을 참고하여, 한국어 번역사의 시작점을 통시적(通時的)인 시대구분의 접근과 번역서를 기준으로만 본다면, 『균여전(均如傳)』과 동시대인 최행귀(崔行歸)의 향가 번역인 『균여가(均如歌)』를 그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균여전』의 「역가현덕분(譯歌現德分)」에 실려 있는 최행귀의 「역가서(譯歌序)」에는 “시는 중국말로 읊어서 ‘5언7자’로 갈고 쪼았고, 노래는 한국말로 배열하여 ‘삼구육명(三句六名)’으로 끊고 갈았다.(詩搆唐辭 磨琢於五言七字 歌排鄉語 切磋於三句六名)”라고 적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최행귀는 당시 당나라 시구(詩句)의 구조와 한국어로 번역된 시구의 형태적 구조의 차이를 인식하여, ‘삼구육명’의 번역 방법으로 한국어에 어법에 맞게 시구를 재구성하였으니 기록으로 남겨진 초기 번역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역사적 사료라고 하는 단순한 관점으로만 본다면, 최행귀의 『균여가』를 한국어 번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최행귀의 『균여가』는 명백한 역자(譯者)가 밝혀져 있고, 번역된 시기와 출발텍스트(ST), 도착텍스트(TT)가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 방법, 번역목적 등 번역의 제반 요소가 모두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그래서 사료 중심의 관점에서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사료 중심의 통시적 관점에서 번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은 기존 사료 발견의 노력과 그 사료에 관한 반복적인 논증의 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사건(사료) 또는 이벤트로서의 번역사 기술에서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통시적 사건을 뒷받침할 공시적인 상황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균여가』보다 더 이른 시기의 유사한 사료가 발견된다면, 『균여가』는 더 이상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균여가』 역시 당시의 사회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지우기도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은 단지 발견된 사료의 연구일 뿐, 역사적 사실은 아직도 땅속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서 사료가 보여준 출발점은 현존 사료가 우리에게 보여준 환영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학문적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환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대할 수밖에 없다.¹⁷⁾ 따라서,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존 사료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5) “최근까지 번역 이론의 주제(subject)를 지배해 온 대부분의 논의들은 로마의 수사학자이자 웅변가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와 성경 번역자 성 제롬으로부터 시작된다.”(Munday, 2009:1) 참조.

16) 금기창(1993:7)의 『新羅文學에 있어서의 鄉歌論』 “「均如傳」은 同時代人인 崔行歸의 「均如歌」譯詩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참조.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찾은 최행귀의 인물 정보에 따르면 그의 생년(生年)과 졸년(卒年)은 미상(未詳)이지만 시대 정보를 보면, 그는 고려전기의 인물이라는 정보가 있다. 또한, 한국민족문화대백사전 「삼구육명(三句六名)」의 개설 내용에 의하면, 최행귀는 고려 광종 시대의 한림학사(翰林學士)라는 기제가 있다.

17) 이기문(1961, [2013])의 『국어사개설』 연구 방법에서 제시된 ‘문자의 환영’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현재까지 발견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인 사료로만 한국 번역사의 전모(全貌)를 거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3.2. 조직이론을 통한 출발점의 산출 방법과 조건

해당 언어나 문화권의 번역사를 해제하고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어권이나 문화권의 차이를 드러내는 번역의 구성과 형식적 유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번역에 대한 유형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야콥슨(Jakobson, 1959)의 연구에서 언급된 ‘언어 간의 번역’이라는 구성적인 유형이다. 이러한 구성 유형을 중심으로 본다면, 한국어 번역사를 ‘언어 간의 번역’ 행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학자들이 기원 5세기, 고구려 덕흥리 벽화고분(高句麗德興里壁畫古墳) <태수내조도(太守來朝圖)>에 통역관이 그려져 있다는 주장도 있다.¹⁸⁾

물론, 단지 태수내조도만으로 고구려 시기에 한반도에서 ‘언어 간의 통번역’ 활동이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하기에는 통역에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헌의 사료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리적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고대부터 동아시아의 중심을 위치한 한반도에서 ‘언어 간의 번역’의 시작은 우리의 상상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에서 ‘언어 간의 번역’을 발견하는 것이 과연 한국의 번역사에서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측면이든 국가적인 측면이든 한반도에서 다른 언어 간의 통역이나 번역 활동이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 이미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을 정의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역사 사료나 사건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작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본고는 한국 번역사 출발점의 연구를 언급하고, 그 사실을 수용하는데 최소한 2가지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3.2.1. 출발점에 대한 개념적 재고(再考)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에 대한 정의적 개념을 논의하려면, 필수적인 논점은 출발점 또는 시작점(始點)에 대한 개념이 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출발점이란, 먼저 ‘길을 가는 데 처음 떠나는 지점’ 그리고 둘째로 ‘일을 시작하거나 일이 비롯되는 지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은 사전적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단순히 개인 번역 행위로 출발하는 것이 아닌, 분석 가능한 집단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발생한 번역과 관련된 사건.
- (2) 문제 해결을 위해 번역이나 통역을 수반한 이벤트.
- (3) 역사 안에서 일정 시간에 거쳐 번역을 통한 문제를 해결의 가시적 과정의 노출.
- (4) 상황 지속성: 역사 속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양상과 과정
- (5) 사적 연속성: 해결책이나 해결책이 가져온 공적 제도의 승계(承繼)

3.2.2. 사회적 조직이론 모델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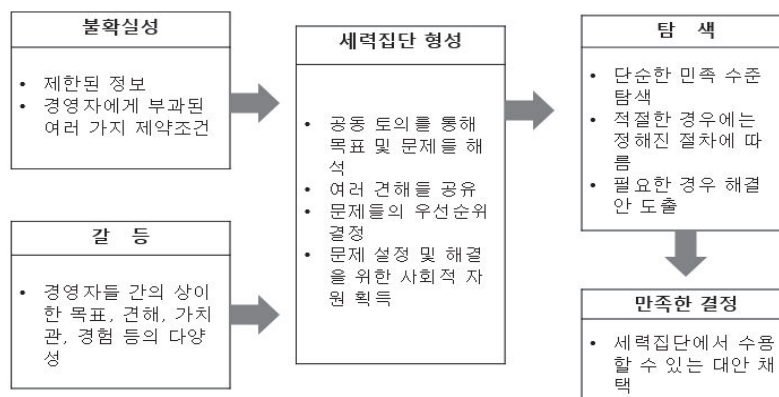
하나의 공동체에서 조직(organization)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목적성은 사회적 의도에 의하여 행동들이 구조화되고 조정됨으로 공동체 안에서 조직의 존재는 외부 환경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질

18) 김연수(2015)와 정승혜(2017)에서 ‘통사리(通事吏)’에 관한 주장을 참조.

수밖에 없다(김광점 외 역, 2020:22). 그리고 조직은 일종의 체계화된 구성적 특징을 보이는데, 공동체에서 공통의 문제에 대한 ‘입력(input)-처리(process)-출력(output)’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처리(수행) 모델을 가진다.¹⁹⁾

번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사회 조직이론의 주요한 관점은 한국사에서 발견된 개인적인 번역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조직 차원에 발생한, 번역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번역 이벤트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만족한 결과’를 낼 때까지 지속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에 해당 이벤트가 관여해야 한다. 이와 관계되는 사회적 조직이론의 대표적인 분석 모델은 카네기(Carnegie)가 제시한 조직이론 모델을 들 수 있다(김광점 외 역, 2012:313).

카네기(Carnegie)가 제시한 조직이론 모델에서는 역사적 이벤트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수용되기 위해서 아래 <그림 1>에서 제시된 다섯 단계의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김광점 외 12(2012), 조직이론과 설계, 10판, 한경사, p.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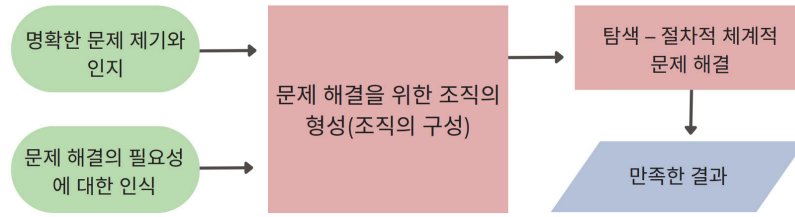
<그림 1> 조직이론으로서의 카네기 모형

- (1) 불확실성: 제한된 정보에서 경영자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의 제약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갈등: 경영자들 간의 상이한 목표, 견해, 가치관, 경험관, 경험 등의 다양성을 가리킨다.
- (3) 세력 집단 형성: 공동 도의를 통해 목표 및 문제들을 해석하여 여러 견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세력 집단의 형성이다.
- (4) 탐색: 만족한 수준의 탐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안까지 도출하는 것은 이 부문의 주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 (5) 만족한 결과: 만족한 결과의 도출은 조직이론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불확실성과 갈등이 조직이론 체계의 ‘입력’으로 볼 수 있다면, 세력 집단이 수용이 가능한 제안의 도출과 채택은 조직이론 체계에서 ‘출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위의 제시한 ‘카네기의 모형’과 출발점에 대한 개념적 재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어 번역사의 시작점을 찾기 위한 체계화된 분석 모델을 다시 구성하고자 한다.

19) 입력(input)은 사회 조직 안에서 문제를 수용하는 과정이며, 처리(process)는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 조직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력(output)은 문제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사회 조직 안에 그 흔적을 남기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연속은 사건의 발생, 처리 해결이라는 사회 조직의 관점에서의 기준점을 설명할 수 있다.

4. 출발점을 위한 시점(視點)과 시점(時點)



〈그림 2〉 카네기 모델을 바탕으로 수정한 조직이론 모델

앞서 3장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한국의 번역사의 시작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통시적인 서지학 기반의 접근을 넘어서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법의 하나로 사회 조직이론을 통한 한국어 번역사의 출발점에 대한 연구 접목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번역사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학제 간 융합적인 연구 방법은 한국의 번역사 연구에서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각과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방법은 기존의 연구 방식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이론을 결합하여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4장에서는 앞서 3.2절에서 도출한 조직이론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어 번역사 연구를 사회 조직이론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림 2〉의 사회 조직이론의 모델을 한국어의 번역학에 적용하기 위해, 위의 모델을 두 개의 순차적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여 인식하는 ‘관점의 적용’을 의미하는 ‘시점(視點)’이다. 이것은 사회적 시스템에서 공동의 문제 발생을 인지하고 지식적 처리를 위한 인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입력(input)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변화의 시간과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전환의 ‘시점(時點)’이다. 이는 인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 과정으로 사회적 시스템에서 처리(process)와 출력(output)으로서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다.

4장에서는 위의 모델을 통해서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에 관한 논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을 단순히 발견된 사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조직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출발점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사회 조직이론의 모델을 기준으로, 고려 충렬왕 시기, 원나라와의 외교적 관계와 의사소통의 상황을 함께 살피고 있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에서 통번역을 대한 진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노력의 결과에 대한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의 역사에서 통번역 문제 인식과 사회 조직의 탄생

사회적 문제 해결	사회 조직이론 모델	충렬왕 이전(고종, 원종)	충렬왕 이후
입력 (input)	명확한 문제 제기과 인지	1. 원 간섭기 시작 후 명확한 통번역의 문제 제기가 없었음 2. 한자언어와 몽고신자로 인한 외교 문제 발생	1. 원 나라 몽고신자의 채택으로 인한 '문이치(文二致)' 문제 인지 2. 고려의 설인(舌人)으로 인한 폐해(弊害) 문제에 대한 인지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 통번역 인재 양성이 없었고 기존 통번역사만 등용(登庸) 2. 조직 차원의 통번역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음	1. 몽골어와 몽고신자의 교육, 통번역사 양성의 필요성 인식 2. 원 나라와의 안정적인 외교 회복 등 대책의 필요성 인식
처리 (process)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의 형성(조직의 구성)	기존 통번역 인력 안에 문제 해결 시도	김구(金垉)의 건의에 의한 새로운 조직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 통문관의 설치
	탐색 - 절차적 체계적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색이 없었음	1. 통·번역사 교육 방안과 선발 제도 마련 2. 기관 내의 몽골어와 몽고신자 등 언어 교육 시작
출력 (output)	만족한 결과	만족한 결과 도출이 없었음	1. 원 나라와의 안정된 외교 관계 회복됐음 2. 역관 양성과 국교 외교 수행 강화 3. 통문관 조직의 제도 승계

위의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종과 고종의 시기는 사회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번역사 출발점의 이전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진 충렬왕 시기는 위와 같은 모델의 적용을 통해서,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근거가 되는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조직이론에서 보는 한국 번역사의 출발점은 고려 충렬왕 2년(1276년)에 설치된 통문관의 설치를 그 기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 참고문헌 ■

- 금기창(1993), 新羅文學에 있어서의 鄉歌論, 서울: 태학사. Geum, K. (1993). A Study on Folk Songs in Silla Literature. Seoul: Taehaksa.
- 김광점 외 역(2012, [2020]), 조직이론과 설계, 서울: 한경사. Kim, G. et al. (Trans.). (2021). Organizational Theory and Design. Seoul: Hankyungsa.
- 김남휘(2012), 통역의 역사 개관 - 고려시대까지. 통번역학연구, 16(1), 1-19쪽. Kim, N. (2012).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 Until the Goryeo Dynasty.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16(1), 1-19.
- 김연수(2015), 고구려 고분벽화의 성별분류와 여성두식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3, 121-157쪽. Kim, Y. (2015). Gender Classification and Study of Women's Hairstyles in Goguryeo Tomb Murals. Goguryeo Balhae Research, 53, 121-157.
- 김효중(2000), 번역의 역사와 이론, 번역학연구, 1(1), 33-57쪽. Kim, H. (2000). History and Theory of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1(1), 33-57.
- 남성우(201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Nam, S. (2016). Understanding and Performing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oul: Hankookmunhwasa.
- 박용운(2005), 고려시기의 통문관(通文館)(사역원(司譯院))에 대한 검토 - 한어도감(漢語都監), 역어도감(譯語都監), 이학도감(吏學都監), 한문도감(漢文都監)과도 관련하여 -. 韓國學報, 31(3), 2-23쪽. Park, Y. (2005). A Review of the Tongmungwan (通文館) (Sayeokwon (司譯院)) during the Goryeo Period - In relation to Hanguodo (漢語都監), Yeokodo (譯語都監), Ihakdo (吏學都監), Hanmundo (漢文都監) -. Journal of Korean Studies, 31(3), 2-23.
- 안병희(2009), 國語史 文獻 研究. 경기도: 신구문화사 .Ahn, B. (2009). Research on Documents of Korean Language History. Gyeonggi-do: Singumunhwasa.
- 유명우(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 번역학연구, 3(1), 9-38쪽. Yoo, M. (2002). An Essay for the Organization of Korean Translation History. Translation Studies, 3(1), 9-38.
- 이기문(2013), 國語史概說, 서울: 태학사. Lee, K. (2013). Overview of Korean Language History. Seoul: Taehaksa.
- 이미숙(2009), 高麗時代의 譯官 研究, 韓國思想과 文化, 46(-), 201-234쪽. Lee, M. (2009). Study on Translators during the Goryeo Dynasty. Korean Thought and Culture, 46, 201-234.
- 이정신(2014), 高麗後期의 譯官, 한국중세사연구, 38, 373-403쪽. Lee, J. (2014). Translators in the Late Goryeo Period. Studies in Korean Medieval History, 38, 373-403.
- 이진(1984), 崔行歸 譯詩 考察, 東慶語文論集, 1(-), 151-176쪽. Lee, J. (1984). A Study on Choi Haeng-gwi's Translated Poetry. Dongkyeong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ction, 1, 151-176.
- 전가람(2016), 고려 후기 金垵의 文翰外交와 通文館 설치. 大東漢文學, 48(-), 57-86쪽. Jeon, G. (2016). Diplomatic Correspondence of Kim Hoo in the Late Goryeo Period and the Establishment of Tongmungwan. Dae-dong Hanmunhak, 48, 57-86.
- 정광(2017), 역학서의 세계, 서울: 박문사. Jung, K. (2017). The World of Translation Studies. Seoul: Bakmunsa.
- 정승혜(2017), 古代의 譯人 - 덕흥리 벽화고분 <太守來朝圖>의 여성 통역관의 발견과 관련하여, 목간과 문자 0.19, 169-186쪽. Jung, S. (2017). Ancient Interpreters - On the Discovery of a Female Interpreter in the Mural Tomb of Deokheung-ri, 'Taishou's Visit to Court' and its Significance. Wooden Spaces and Letters, 0.19, 169-186.
- 최계화(2012), 조선초기 漢語文政策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Choi, K. (2012). A Study on the Hanja Literacy Policy in Early Joseon Dynas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최효은(2016), 번역사(翻譯史)와 번역사 연구의 개념. T&I Review, 6(-), 31-48쪽. Choi, H. (2016). The Concept of Translation History and Translation History Studies. T&I Review, 6, 31-48.
- Bassnett, Susan(2014), Translation studies. England: Routledge.
- Cho, S., et al.,(2006), Korean as a World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11, pp.1-16.
- Munday, Jeremy, ed. (2009), The Routledge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revised edition, Oxon: Routledge, pp.1.

Pym, Anthony(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Routledge.

Santoyo, J.-C.(2006), *Blank Spaces in the History of Translaion*. In G. L. Bastin & P. F. Bandia (Eds.), *Charting the future of translation history*. essay, University of Ottawa Press.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English loan words in Korean and Japanese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focusing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rademark Names–

Roh Chaehwan(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 Introduction

We sometimes use foreign words in our daily lives. In particular, companies and brand names have many foreign words. For example, Koreans use “이따가 버거킹 갈까?” and Japanese use “後でバーガーキングに行こうか” At this time, loan words in Korean and Japanese are realized as [pəgəəkʰiŋ] in Korean and [ba:ga:kiŋgu] in Japanese. This difference appears because the methods of making loanwords of foreign words differ in the two languages.

For learners who lear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or Japanese as a foreign language, English loan words in each language must be known separately as a target language. Since mother tongue interference effects, it is not easy to immediately convert English enterprise names or brand names that learners encounter for the first time into target words.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know how to borrow foreign words from the target word because it is necessary to translate the nam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into the target word in th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ield.

When we look at the process of one language adopting another, we can see what phonological strategies the language uses when making loanwords. (Roh, 2022; p192). This study examines how multinational enterprise names are realized in Korean and Japanese and what phonological strategies are used in this process. Through this, foreign learners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learners learning Japanese as a foreign language know the principle of converting corporate names to targets and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When one language borrows another, it tries to fit into the mother tongue's segmental system. This is a method of corresponding the sound value of the foreign language to the sound value of the native language. In addition, when the syllable structure of the native language and the foreign language is different, the sounds of the foreign language are pronounced according to the syllable structure of the native language. In this regard, this chapter

examines the syllable structure of Japanese. It examines the important discussions on how to handle the syllable-final consonants of English concerning the way English is accepted in Japanese.

2.1. Syllable structure of Japanese

Government phonology analyzes that all onsets are realized¹⁾ after being approved by the syllable nucleus. According to this discussion, the final consonant can be interpreted as onset, followed by the nucleus that approves it. In other words, consonants that come to the end of a syllable are approved by the syllable nucleus component, which has no vowel value. Such a syllable nucleus without a vowel value is called an empty nucleus. However, depending on the language, some languages do not have these empty nuclei, and Japanese is the figurative language. Therefore, in Japanese, empty nuclei must be interpreted phonetically. This can be expressed as follows.

(1) Syllable structure of Japanese

O	N	O	N
x	x	x	x
C1	V1	C2	N/V1

According to (1), the nucleus is an essential element in Japanese. Only one consonant is possible in the onset position. In addition, nasal sounds may come to the end of the syllable, linked to the nucleus (Shohei Y., 2003). In this way, Japanese's syllable structure, which must end with the syllable nucleus, applies equally to making English loanwords. In the next section, we will look at the strategies applied to accepting native languages and foreign languages.

2.2. Nucleus-dominant principle and onset-dominant principle

In this section, we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languages with restrictions on syllable speech use the same or different strategies as their native languages when speaking foreign languages.

In Heo (2008), natural languag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were approved for empty nuclei at the end of the domain and licensing of onset in government phonology.

1) See Kaye, Lowenstamm & Vergnaud (1985; 1990) for detailed principles on the onset licensing by a nucl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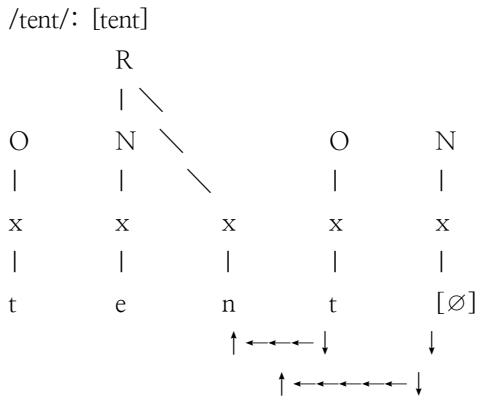
<table 1> Types depend on whether the empty nucleus is at the end of the domain (Heo 2008, p313)

types \ licensing	empty nucleus in domain final		coda–licensing ²⁾ principle	
	NO	YES	NO	YES
type 1 –V	√			
type 2 –VC∅		√	√	
type 3 –VCC∅		√		√

In the table above, according to the degree of licensing of the empty nucleus at the end of the domain, it can be divided into Type 1 (e.g., Japanese) that ends in a vowel, Type 2 (Korean, Thai) that ends with one consonant and has an empty nucleus, and Type 3 (English, French) that allow a consonant cluster.

Type 1 languages do not license empty nuclei at the end of the domain and do not have obstruent at the end of the syllable. In these languages, most syllables end in vowels, and the consonants that can come at the end of the syllable are usually limited to nasal sounds³⁾. Languages belonging to type 2 do not have a consonant cluster and can only be one consonant at the end of a syllable. Type 3 languages allow consonant clusters at the end of the domain, and these languages can have two consonants before the empty nucleus at the end of the domain. This can be expressed as follows.

(2) a. final consonant cluster (type 3 languages)



In (2), it can be seen that the domain's final empty nucleus has the power of coda–licensing and licenses the government relationship of /nt/. In the consonant cluster of /nt/, /n/ is linked to the rhyme, and /t/ is linked to the on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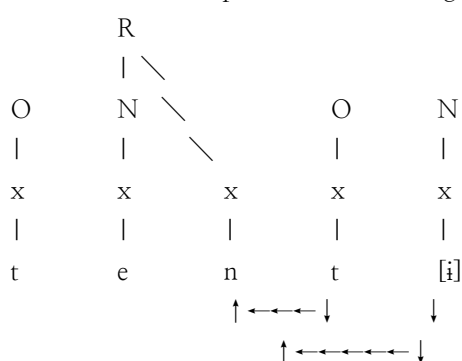
The problem is when languages belonging to types 1 and 2 borrow languages corresponding to type 3. In other words, examples of two consonants coming to the end of a syllable, such as 'tent',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anguage when looking at the patterns realized in languages belonging to type 1. In other words, among the

2) Charett(1991) first presented the principle of coda–licensing, which is the concept that for a consonant cluster A and B to form a dominant relationship to be licensed, it must be licensed by the subsequent nucleus.
 3) In this case, the nasal sound is linked to the nucleus.

languages belonging to Type 1 and 2, Korean and Japanese are pronounced like [tenti] to preserve the sound of borrowed words as much as possible when making loanwords. The principle of onset–dominant principle can explain this.

- (3) onset–dominant principle: The empty nucleus is interpreted phonetically to realize the phonetical value of the onset.

/tent/: [tenti]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loanwords in Korean)



Since Korean pronounces words ending in consonant clusters, such as /kaps/, as [kap], it can be seen that the nucleus–dominant principle is applied in pure Korean pronunciation. However, the situation is different when pronouncing borrowed words, as shown in (3) /tent/ is pronounced by inserting a vowel as [tenti]. When the empty nucleus at the end of the domain is interpreted phonetically as [i], the preceding onset can be fully licensed. Moreover, the inter–onset relationship between the onsets is established. Through this, Koreans borrow foreign words to realize the speech sound of foreign words as much as possible.

As such, languages that license the domain's final empty nucleus can also be divided into two types depending on the governing–licensing principle of the licensed empty nucleus.

〈table 2〉 types of empty nucleus at the domain final (Heo 2008, p 315)

licensing types	empty nucleus in domain final		coda–licensing principle		
	NO	YES	NO		YES
			ND ⁴⁾	OD	
type 1 –V	√				
type 2–1 –VC∅		√	√		
type 2–2 –VC∅		√		√	
type 3 –VCC∅		√			√

In 〈Table 2〉, Korean belongs to type 2–1, but making loanwords takes type 2–2. However, Japanese is a type 1

4) ND stands for Nucleus–dominant, OD stands for Onset–dominant.

language, and neither native nor foreign languages license an empty nucleus at the end of the domain.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the strategies for borrowing enterprise names in Korean and Japanese will be analyzed in the next chapter.

3. Patterns of adopting international enterprise names in Korean and Japanese

First, let us look at the data on how international enterprise names are realized in Korean and Japanese. Brand Finance selects the most valuable brands in the world in its annual Global 500 report, of which 100 have been reviewed. Among them, 43 enterprises commonly known in Korea and Japan are as follows.

〈table 3〉 2022 the world's top 100 enterprises (commonly recognized in Korea and Japan)⁵⁾

Brand	Korean	Japanese	Brand	Korean	Japanese
Apple	애플	アップル	Coca-Cola	코카콜라	코카·코라
Amazon	아마존	アマゾン	Porsche	포르쉐	폴르셰
Google	구글	グーグル	Instagram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	マイクロソフト	Nike	나이키	나이키
Samsung	삼성	サムソン	Netflix	네플릭스	ネットフリックス
Facebook	페이스북	フェイスブック	Honda	혼다	ホンダ
Huawei	화웨이	ハーウェイ	American Express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アメリカンエクスプレス
Toyota	도요타	トヨタ	VISA	비자	ビザ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メルセデス・ベンツ	Cisco	시스코	シスコ
TikTok(Douyin)	틱톡	ティックトック	FedEx	페덱스	フェデックス
Disney	디즈니	ディズニー	Intel	인텔	インテル
Tesla	테슬라	テスラ	Hyundai	현대	ヒュンダイ
Starbucks	스타벅스	スターバックス	SK Group	에스케이	エスケイ
Allianz Group	알리안츠	アリアンツ	YouTube	유튜브	ユーチューブ
Volkswagen	폭스바겐	フォルクスワーゲン	Alibaba	알리바바	アリババ
NTT Group	엔티티	エヌティーティ	Uber	우버	ウーバー
McDonald's	맥도날드	マクドナルド	Mastercard	마스터카드	マスターカード
Mitsubishi	미쓰비시	三菱	IBM	아이비엠	アイビーエム
BMW	비엠더블유	BMW	Nestlé	네슬레	ネスレ
Costco	코스트코	コストコ	LG Group	엘지	エルジー
Marlboro	말보로	マルボロ	Pepsi	펍시	ペプシ
			Sony	소니	ソニー

5) <https://brandirectory.com/download-report/brand-finance-global-500-2022-preview.pdf>

3.1. The cases in which the realization of the syllable-final consonant is the same.

When the syllabic final consonant ends with an obstruent, examples of applying the onset-dominant in Korean and Japanese are as follows.

〈table 4〉 Enterprise names in Korean and Japanese 1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	マイクロソフト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メルセデス・ベンツ
Starbucks	스타벅스	スターバックス
Allianz	알리안츠	アリアンツ

If the final consonant of the enterprise name ends with an obstruent, Korean and Japanese interpret the empty nucleus phonetically to preserve the sound of the consonant, which can be expressed as follows.

(4) /majk^hrosoft/

a. Korean: [maik^hirosop^hi^hi]

O	R	O	N	O	N	O	N	O	N	
	N \									
x	x \	x	x →	x	x	x	x	x	x	
	\									
s	o	f	t	[∅]	s	o	p ^h	i	t ^h	i
				s	o	p	u	t	o	
						↑ ← ← ← ↓		↑ ← ← ← ↓		

b. Japanese: [maikurosoputo]

O	R	O	N	O	N	O	N	O	N	
	N \									
x	x \	x	x →	x	x	x	x	x	x	
	\									
s	o	f	t	[∅]	s	o	p	u	t	o
						↑ ← ← ← ↓		↑ ← ← ← ↓		

(4) shows the pronunciation of 'Microsoft' in Korean and Japanese. In /majk^hrosoft/, the last consonant /t/ in consonant cluster /ft/ is licensed by an empty nucleus, and /f/ is licensed by licensed /t/. When this structure is entered in Korean and Japanese, both languages choose to preserve the sound of the language they borrow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to realize the /ft/ of the consonant cluster in English, the empty syllable nucleus is interpreted as [i] in Korean and as a round vowel in Japanese, and both consonants are pronounced.

3.2. The cases in which the realization of the syllable-final consonant differs.

The following are cases in which syllabic final consonants are realized differently in Korean and Japanese. In this case, Korean applies the nucleus-dominant principle, and Japanese applies the onset-dominant princi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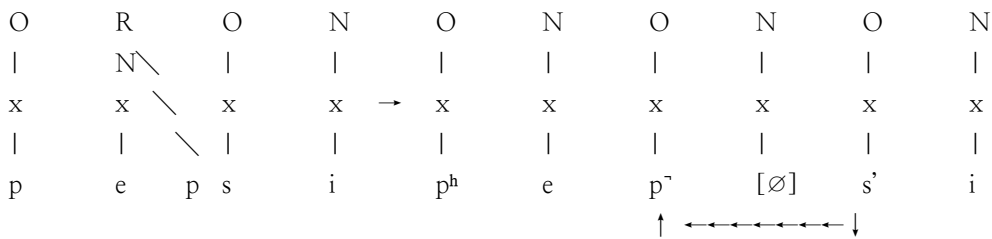
(table 5) Enterprise names in Korean and Japanese 2

Apple	애플	アップル
Instagram	인스타그램	インスタグラム
Facebook	페이스북	フェイスブック
TikTok(Douyin)	틱톡	ティックトック
Pepsi	펩시	ペプ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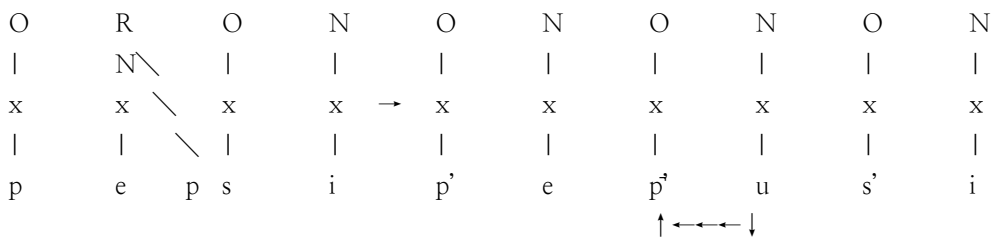
Here is an example of 'Pepsi'.

(5) /pepsi/

a. Korean: [p^hep̣˚s'i] nucleus-dominant



b. Japanese: [p'ep'usi] onset-dominant



(2) shows the pronunciation of 'Pepsi' in Korean and Japanese. In the case of Korean, the empty nucleus is left as it is by tensification in the domain, but in the case of Japanese, the vowel is interpreted as a round vowel to license /p/ by applying the onset-dominant principle, and [p] is pronounced as an onset.

3.3. Interpretation of /l/

The realization of /l/ is a case that shows a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segmental sounds in Korean and Japanese. This difference is as follows. In the case of Korean, /l/ is interpreted as /ll/ and in Japanese as /ɾ/. These examples ar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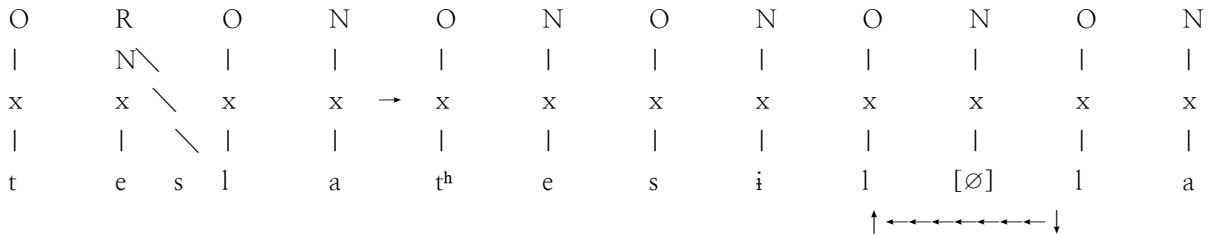
<table 6> Enterprise names in Korean and Japanese 3

Tesla	테슬라	テスラ
Alibaba.com	알리바바	アリババ
Nestlé	네슬레	ネスレ
Allianz Group	알리안츠	アリアンツ
Netflix	네플릭스	ネットフリック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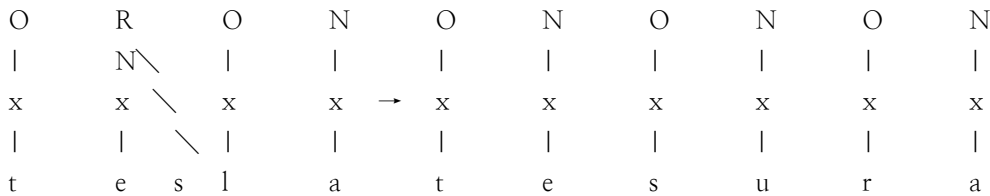
The above example shows that Korean interprets /l/ as a series of onsets with an empty nucleus between them, and Japanese interprets /l/ as /r/ to reduce the syllable weight. The example of 'Tesla' is as follows.

(6) /tesla/

a. Korean: [tʰesilla] nucleus-dominant



b. Japanese: [tesura] onset-dominant



4. final

So far, it is investigated the acceptance strategy of English pronunciation in Korean and Japanese and analyzed phonologically how international enterprise names are pronounced in Korean and Japanese.

Korean is a language that licenses an empty nucleus at the end of the domain and can have final consonants. However, when borrowing English, the nucleus-dominant principle is used like the Korean. However, there are cases the onset-dominant principle is also used to preserve the original phoneme of English. In the case of Japanese, it is impossible to have an empty nucleus at the end of the domain, so the principle of the onset-dominant is applied in both the mother tongue and English loanwords.

However, in the interpretation of /l/, to maintain the syllable weight of /l/ in Korean, it was interpreted as a series of onsets with an empty nucleus between each onset. In Japan, a strategy to reduce the syllable weight was used.

This analysis found that Korean and Japanese sometimes use common strategies in borrowing international

enterprise names, but there are cases where different strategies are used.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is study did not examine the overall interpretation of the phoneme of each segment and the acceptance of the segment sequences but only examined the acceptance method of the syllabic final consonants.

■ Reference ■

- Rho, C. H.(2022).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English final consonants in Myanmar language, *Southeast Asia Journal* 32-2, 191-214.
- Moon, Y. J.(202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arning Efficiency of Korean loanwords by Japanese Speakers based on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loanwords Notation: focusing on English borrowde word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Research* 16. 85-105
- Ogino, Sh.(2014). A Study on Education of Loanword in Korean Language for Japanese Learners, *Field Stud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8-2, 299-226.
- Heo, Y.(2008). A Study on the Cases of the Phonological Behaviors of the Empty Nucleus. *Language and Linguistics* 41, 303-328.
- Heo, Y.(2012). A Contrastive Study on Consonant Systems of Southeast Asian Languages: The Cases of Malay, Thai and Burmese,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63, 343-368.
- Charette, M.(1991), *Condition on phonological governmen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ohei Y.(2003), The syllabic nasal in Japanese. *In Living on the Edge*. De Gruyter Mouton.
- Kay, J., Lowenstamm J. & Verngaud, J.-R.(1985), The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Phonology Yearbook* 2, 305-328.
- Kay, J., Lowenstamm J. & Verngaud, J.-R.(1990). Constituent structure and government in phonology. *Phonology* 7-1, 193-231.